

광 고

원양산업

제 1169 호
(2024년 5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제123회 해양정책포럼 참석 / 4
- 2024 수산분야 주요 CEO 초청 세미나 주최 / 5
- 2024년도 제1차 노사단체 교섭협의회 개최 / 6
- 남서대서양 공해 저충트롤어업 업계간담회 개최 / 7
- 과학원-공치붕수망어업 업무협의회 개최 / 7
- '원양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8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 8
- ODA, 자원 확보와 외교의 '가교' 역할 / 9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11



이달의 요리

- 콩치김치찌개 / 17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5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736달러 / 18

■ 참치어업 동향

- 태평양 가다랑어 3월 어획, 2월 대비 12% 증가 / 19
- 중서부태평양 3월 전채량 17% 증가 / 20
- 태평양 황다랑어 어획, 24년 들어 저조한 수준 / 21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15달러 / 22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75달러 / 22
-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250유로 / 23
- 日 냉동 눈다랑어 3월 수입 가격, kg당 809엔 / 24
- 日 냉동 참치류 3월 수입 통계 발표 / 25
- 태평양 도서국, 미국과 참치 조약 체결 / 26
- NGO “中 인도양서 조직적 인권침해IUU 자행” / 27
- 과학자 “IOTC, 타 RFMO 배정 방식 참고해야” / 28
- 그린피스, 美 정부에 범블비社 제재 촉구 / 29
- 美, 수산물 통조림 매출 성장세 / 30
- 냉동 참치 시장, 2032년까지 2배 성장 전망 / 32
- MSC 참치, 매출 상승세 지속 / 33
- 태국 2024년 1분기 원어 수입 대폭 증가 / 34
- 베트남, 해외 시장으로 참치 수출 늘려 / 34
- 과학자,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자원 상태 경고 / 35
- 바다의 송아지 고기, 참치 / 36
- EU 올리브유 가격 3% 하락 / 37
- 글로벌 식물성 기름 가격, 높은 수준 유지 / 37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조업 양호 / 38
- 포클랜드 어업협회장, 남대서양 RFMO 설립 촉구 / 39
- 中 어선의 페루 무단 입항...페루 조업 방해 / 40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산 명태 H&G 가격, 톤당 1,000달러 돌파 / 41
- 러, 연육 생산량 대폭 증가하며 명태 시즌 종료 / 42
- 24년 명태 첫 어기 어획량 15년 중 최고 기록 / 43
- 2023년 세계 연육 생산량, 약 80만톤 추정 / 44
- 中, 명태 수입량 및 재고량 감소 / 45
- EU 명태 수입량, 2024년 1월 급감 / 46
- 러 수산 협회, 정부에 신규 해외 시장 개방 촉구 / 47
- 한국, 중국 세븐일레븐과 계, 새우 스낵 출시 / 47
- 트라이던트 유럽 회사, 여전히 러산 명태 조달 / 48

■ 꽁치어업 동향

- NPFC, 꽁치 공해 TAC 13만 5,000톤 설정 / 49
- 日 꽁치 2024년 TAC 6% 삭감 / 50

■ 각국 수산 동향

- 중국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 51
- 일본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 52

- 인도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 53
- 호주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 54
- 캐나다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 55
- 미국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 56
- 2023년 러시아 어업 수익 13% 감소 / 56
- 국가별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 57
- 대만 원양 조업선, 여전히 문제 수역에 머물러 / 59



쉬어가는 난

- 가끔 눈을 감고 - 안소연 / 60



국내 수산 정보

- 4월 오징어 국내 동향 / 61
- 4월 명태 국내 동향 / 63
-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 65
-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 5천 톤 공급 개시 / 66
-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 / 67

제123회 해양정책포럼 참석

해수부 국정과제·핵심 정책 강연 및 업계 의견 수렴



우리 협회는 5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3회 해양정책포럼’에 참석하였다.

해양정책포럼은 해양수산업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수산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재단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 관련 기업과 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분야의 권위 있는 토론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KMI, 한국해양재단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

규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정부 국정과제와 그간의 정책 성과, 올해 핵심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강 장관은 “해양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지속 번영해 나가려면 해양수산업에서 민생과 경제활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라며, “올해 해양수산분야의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활력을 높이고, 해운·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 수산분야 주요 CEO 초청 세미나 주최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 논의



우리 협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무역 협회와 함께 5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제3차 수산분야 주요 CEO 초청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수산 CEO 초청 세미나는 정부와 수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모여 수산업의 당면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송명달 차관 등이 참석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외 수산분야 연구진, 수산수출입 분야 다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정일산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회장과 양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종 국제 분쟁 및 무역 갈등, COVID-19 영향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조짐 및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확인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4년도 제1차 노사단체 교섭협의회 개최

2024년도 임금교섭 부의안 건 협의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노사단체 교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원양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박진동 위원장, 사무처장, 조직본부장, 기획홍보부장 외 4명이 참석하였다. 원양선사 측 교섭위원으로는 정일산업(위원장사), 아그네스수산(부위원장사),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성경수산(이상 위원

사 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임금교섭 부의안 건과 관련하여 항목별 요구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이 이루어졌고, 차기 노사단체 교섭협의회 개최 일정 및 장소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었다.

남서대서양 공해 저층트롤어업 업계간담회 개최

FAO41해구 조업 현황 관련 의견 청취 등 진행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협회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남서대서양 공해 저층트롤어업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박정석 연구관 외 2명이 참석하였고, 원양업계에서는 동남, 사조오양, 선민수산,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참손푸드, 코삭 교역(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FAO41해구 조업 현황 관련 의견 청취, 어획보고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요청, 읍서

버 역할 관련 논의,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결의 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관련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과학원-꽁치붕수망어업 업무협의회 개최

꽁치 자원평가 결과 등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협회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국립수산과학원과 꽁치붕수망어업 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박정석 연구관 외 2명이 참석하였고, 원양업계에서는 동원해사랑, 삼영수산, 성경수산, 원양물산(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

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NPFC 꽁치 자원평가 결과 및 주요 조업국 현황, 읍서버 관련 내용, 빨강오징어 조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획보고 철저 및 과학데이터 제공 협조 요청도 이루어졌다.

‘원양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중처법 상 요구사항과 구축 내용 설명 등 진행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일 오후 2시 한국선원센터 4층 증강의실에서 ‘원양어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설명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 직원 50인 미만 선사 중에서는 동신어업, 성경수산, 승진수산, 신해피서리, 원양물산, 코삭교역, 현원수산이 참석하였고, 50인 이상 선사 중에서는 가나마린, 경태, 대해수산, 동남, 동원해사랑,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참손푸드, 해인수산이 참

석하였으며, 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와 김육성 박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협회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 설명회는 중처법 상 요구사항과 구축 내용, 이행 점검 목록과 이에 따른 구비 필요 서류,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제정 및 실무에 대한 설명과 강연이 이루어졌었고, 이와 관련된 업계의 질의응답 또한 진행되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해기사 면허 취득 위한 승무경력 완화 관련 업계 의견 청취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9일 한국선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동 공청회의 배경은 국내 해기사의 장기승선 유도를 위한 해기사 면허제도 승급 소요기관 단축 방안과 관련하여, 업계 및 단체의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이민석 과장 외 2명, 한국해양수산원, 학계, 선주 단체, 노동 단체, 업계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

에서는 소기동 부장이 참석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단체에서는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완화 건과 관련,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승무경력을 완화하겠다는 개정 방향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청회에서는 그 외에도 업계·단체의 의견 건의가 이루어졌다.

해수부 측에서는 동 회의자료의 개정안은 최종안이 아님을 밝히며, 개정안 확정 시 별도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ODA, 자원 확보와 외교의 '가교' 역할

원양어업 입어 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미-중 간 신냉전 긴장이 심화하는 지금, 항공·해상 교통과 해저 데이터 전송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특히 전 세계 참치 연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 수산자원국으로서 태평양 도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가치로 인해 주요 강대국도 태평양 도서국을 포섭하기 위해 각종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FFA) 회원국에 2023년부터 2033년 동안 연간 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경제 지원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이어 지난 9월에도 워싱턴에서 태평양 도서국 2개국과 수교를 맺는 한편,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1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향후 10년간 태평양 도서국에 총 8억 1,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기후변화, 해양안보, 남획 등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U는 2022년 키리바시 크리스마스섬을 상선, 어선, 크루즈선 등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만들기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약 250만 유로 규모의 용역을 실시했다. 키리바시와 솔로몬은 대만과 수교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중국은 2020년 약 6,800만 달러 규모의 태평양 도서국 원조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이에 부응했다.

세계 5위권의 원양 어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 태평양은 연간 원양어업 생산량의 약 72%인 28만 톤 이상(2022년, 국적선 기준)을 차지하는 핵심 어장이며, 태평양 수역에서의 수산 자원 어획 쿼터를 지닌 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

태평양 수역의 참치자원은 조업일수제도(VDS, Vessel Day Scheme)를 통해 관리 된다. 키리바시, PNG 등을 필두로 한 남태평양 PNA(나우루협정당사국, Parties to Nauru Arrangement)는 자국 어장 보존 및 관리와 더불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2012년부터 VDS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어로 수입을 얻는다. 국가 재정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입어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다. 조업일수 가격은 2012년 하루당 2,000 달러에서 2024년 최대 US\$ 1만 2,000로 약 6배 상승하였다. 연안국으로선 수입이 늘었으니 환영할 일이지만, 조업국인 우리나라 원양선망 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선망선 1척이 1년 365일 중 270일을 조업한다고 가정할 때, 1년간 우리나라 원양업계가 지불하는 입어료는 약 1,400억 원에 달한다.

조업국은 연간 사용할 조업일수를 개별 연안국과의 입어 협상을 통해 구매한다. 이 협상에서 연안국은 열악한 자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 협력 기여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요구하는데, 미국, 중국 등 경쟁 조업국에 비해 한국의 ODA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입어 협상에서 매번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양업계는 해양수산부에 전폭적인 ODA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태평양 원양어업기지인 투발루에서 '투발루 어촌그린 ODA 사업' 출범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기존 물자 공여 위주의 ODA 형태에서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인프라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9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한 사업으로, 2023~2026년 동안 67억 원을 투입하여 투발루에 어선 접안시설 건설, 어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민 어업훈련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투발루를 시작으로 핵심 어장인 태평양 국가로의 ODA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키리바시는 우리 원양 선단의 태평양 수역 참치 어획량 35만 톤 중 50%인 17만 5,000톤을 차지하는 핵심 어장이다. 키리바시 신규 인프라 지원 ODA 사업을 위하여 2023년 약 10개월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고, 사업 목표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다. 키리바시나 투발루 외에 나우루, 파푸아뉴기니(PNG),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 등 다른 연안국도 ODA 확대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ODA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024년 PNG 입어 협상에 참석한 수산청 담당자의 티셔츠 옷소매에 눈길이 갔다. 선명한 일본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 일본의 OFCF(해외수산협력재단)가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남태평양 한 도서국의 공항 발권 대기선에도 일본 국기와 OFCF 마크가 그려져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은 바다만이 아니라 지원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복지 개선이나 기후변화대응 등 여러 국가의 연안국에 대한 지원책의 이면에는 수산 자원 확보나 지정학적 경쟁 우위 선점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전폭적인 ODA 확대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세네갈 대통령 모리타니아 방문

- 2024년 4월 2일 취임한 세네갈 국가원수는 첫 해외 순방으로 모리타니를 선택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우호적이고 모범적인 관계를

누려온 모리타니아와의 안보, 환경, 농업, 수산, 에너지, 관세,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 대통령은 특히 가스나 석유, 교통 인프라, 안보에 대한 협력과 모리타니아 수역 조업을 위한 500건의 어업허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나. 세네갈 완전한 독립 추구

- 정부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추구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프랑스에 대한 분노는 더욱 심해져 식민지 기념물이 무너지고 프랑스 기업에 대한 시위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CFA 프랑에서 벗어나 국가 통화를 도입하고 EU와 천연가스 및 어업계약을 재협상하여 국제 자원 거래에서 더욱 공정한 조건을 추구하여 세네갈에 더 많은 혜택 제공을 목표로 한다.
- 조사에 따르면 세네갈 젊은이 대다수는 프랑스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자원 착취 체제를 종식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에 중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1,370
	3.4~10kg	1,270
	1.8~3.4kg	1,170
눈다랑어	10kg~	1,220
	3.4~10kg	1,220
	1.8~3.4kg	1,170
가다랑어	3.4kg~	1,220
	1.8~3.4kg	1,170
	1.5~1.8kg	1,02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641	'24.4.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 주피지 중국대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와의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중국대사는 태평양의 평



화와 협력 그리고 태평양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숨은 의도는 없다고 말하며 중국의 협력을 부정적인 견해로 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나. 일본의 영향력 확대

- 일본은 굴착기 3대, 트럭 3대 등 15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기증하며 수산업 및 여러분야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선박과 제빙기 조달을 위해 1,000만 달러 투자를 주피지 일본대사는 발표하였다.
- 이에 피지 수산부 장관은 이러한 양국의 협력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달성하고 지역의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 해양보호를 위한 경제활동 자제

- 피지정부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도움이 되는 심해채굴 개발을 해양보호를 위해 사업유예를 지속하여 2030년까지 개발을 자제키로 밝혔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800	로인가공용(PAFCO)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253	'24.5.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장 동향

- 지난 4월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8~1.2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3~0.5톤을 어획하여 전월보다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나. 어자원 및 광물 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

- 미국 해안경비대와 사모아 정부는 올해 4월 5일 강화된 협정을 도입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 이 협정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특정 상황에서 사모아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집행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안보와 해양 안전을 촉진한다. 특히 사모아 해양경찰의 승선 없이도 선박검사와 해안 규정을 집행할 수 있어 사모아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보완한다.

다. 태평양지역위원회 개최

- 제16차 태평양지역위원회(SPC)가 4월 22일 뉴칼레도니아에서 개최되었다. SPC는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 의해 1947년 설립되어 26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태평양의 지역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SPC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어업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과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350
눈다랑어	라운드	1,150
가다랑어	라운드	1,150

대비 7배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어획 어종의 종류 34% 증가, 어류 폐기량도 46% 증가하였다.

- 뉴질랜드의 EM 시범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127척의 상업용 선박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수어획 보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3.41	'24.5.8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오징어	2L	6,500
	L	6,200
	M	5,400
	2M	5,850
	S	4,70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오징어어업 동향

- 4월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하여 예년과 비슷한 어획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총어획량을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오징어 가격은 연초보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세계 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 국제수산박람회(4.23~25)에 방문하여 뉴질랜드 오징어에 대한 바이어들의 반응을 살펴본바, 뉴질랜드 오징어는 너무 비싸서 취급 품목에서 제외된 지 오래이나 소수 고객을 감안하여 가격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고 하였다.

나. 연안 선박 모니터링 카메라 설치 효과

- 전자모니터링(이하, EM)의 도입이 부수어획에 대한 보고 및 관리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4월 1일자 자료에 따르면, EM 도입 이후 돌고래 포획이 2018년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터니든	MGO	1,042	'24.5.8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엘니뇨의 어업 영향

- 세이셸 수산 장관은 엘니뇨가 지난해 황다랑어 어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 IOTC에서 세이셸의 황다랑어 할당량은 3만 3,200톤으로 13척의 연승선에 적당 약 2,400톤을 배정하여 조업하고 있다. 인도양의 황다랑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잉 어획된 참치류 중 하나로 IOTC는 2016년 개체수 회복을 위해 어획 허가량을 15% 줄이기



로 합의하였다.

- 세이셸 수산 장관은 지난해 어획량은 할당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으며, 수온이 상승하면 참치는 더 깊은 수심으로 이동하기에 과학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를 엘니뇨로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 스페인, 참치 어획 한도량 발표

- 스페인은 IOTC 수역에서 올해 4만 2,794톤의 황다랑어 쿼터를 할당받았으며, 이는 유럽연합에 할당한 7만 3,078톤의 TAC 중 60%에 해당한다.
- 스페인 농수산식품부는 15척의 참치어선이 황다랑어를 조업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 조업선은 스페인에 지속적인 고품질의 어류 단백질을 공급하며 인도양 국가들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알렸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VIVO	MGO	940	'24.5.10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업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업관

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 4월 27일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 내 12마일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의 채낚기 조업선이 아르헨티나 해군에 의해 발각되었다. 발각된 중국 조업선이 도주하자 아르헨티나 해군은 고속정 2척과 헬기를 동원하여 진로를 막아 중국 조업선에 승선 검색하였다.
- 도주한 중국선박의 승선 검색 결과, 오징어 등 불

법 어획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르헨티나 해군의 시선을 돌려 중국의 다른 불법 조업선을 돕는 미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아르헨티나 기업, 한국 선원 인권 위협

- 지난 5월 8일 아르헨티나 현지 기업인 Argenova社의 'Sohomaru'선에서 근무하던 유명진(1964년생) 한국인 기관장이 병원 치료 협조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요청하였다.
- 유명진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아르헨티나 기업은 2달 이상 지속하여 방치하였으며, 그 사이 병세가 심각해져 마지막으로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12시간 만에 귀국이 결정되었으며, 만약 대사관의 압력이 없었다면 마지막인 5항차 조업도 강제로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Argenova社는 2021년도에도 한국인 기관장을 사망 직전까지 방치하여 당시에 대사관이 협조하여 구출한 바가 있다.

다. 한국인 선원 현지 근무 상황

- 한국인 선원 대부분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기업에 고용되고 있으며 선장이 기관장 등 선원을 데려오는 조건도 포함된다.
- 현지 기업은 한국인 선원이 현지어를 모른다는 단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중계약을 작성하고 있으며, 보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사고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망에 따른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고용 형태는 선장이나 기관장 등 해기사지만 고용계약서상에는 경비 또는 하급 관리원으로 등록하여 입국부터 귀국 시까지 선박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에서 밤늦게 귀가하다가 추락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 선원복지 등의 이유로 출항 12시간 전에는 선박의 숙식이 금지되어 현지인들은 출항 직전에 승선하는 반면, 한국 선원은 선박 안에서만 숙식도 록 하고 있어 현지 법을 위반하고 있다.
- 생명보험 및 의료보험은 보여주기 위해 보험 계약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효력이 전혀 없으며, 위급상황이 발생하여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 아르헨티나 현지 기업은 한국 선원 환자가 발생할 때 아픈 상태로 강제 귀국을 시키거나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하는 병폐가 심각하다.
- 이에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선원의 신변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 및 기업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를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선장이나 기관장, 선장협회가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 한국의 문화상 고용주에게 충성하거나 원만한 합의로 마찰이 없기를 기대하는 관습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고용주에게 강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 발생 시 아무런 대응조차 못 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등의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430	'24.5.12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업 발전 방안 모색

- 가나국립수산업협회 부회장은 가나 항만청 포럼에서 자국의 수산업 유지를 위해 규모가 크고 발전된 어구를 사용하는 카누선은 상업용으로 분류하는 등 전통 카누 어업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현재 해상에는 1만 2천척의 카누선이 존재하며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 평균 어획량이 저조한 상황이다. 새로운 카누선에 대한 허가를 폐지하였음에도 국토천연자원부는 카누 제작을 위한 별채가 허용되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제한도 필요하다.
- 또한 그는 수산부가 카누선에 대한 신규 허가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및 고급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젊은 어부 양성 등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수산업 여성 종사자를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 지난 4월 24일 가나 테마시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가공 및 유통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첫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해양개발원에서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가나 어류 가공, 위생, 저장시설의 경제 활동 촉진과 가나 어민의 가공, 유통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본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 회의에서는 식품위생교육, 어류인증제도, 가족건강 교육,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생선가공기술 등에 대해 발표가 있었으며 생선 훈제 설비에 대해 참석 여성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 가나 명예수산물관은 가나 어업인의 타고난 강한 생활력을 칭송하고 황금어장을 지켜가기 위하여 한국 등 해외 선진 기술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지 발전을 기원하였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200
	~10kg	1,760
가다랑어	3.4kg~	1,550
	1.8~3.4kg	1,500
	1.5~1.8kg	1,350
	~1.5kg	1,15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1,045	'24.4.30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PNG 수산업의 직면 과제

- 바닷가재: 중국 수출 제한이 해제 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태국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 가격은 kg당 60달러였으나 현재는 35달러로 하락하였다.
- 새우: 현재 모든 새우조업선의 노후화로 수리비 상승과 조업 비효율을 겪고 있으며, 국제 유가 상승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4년 어획량은 평년 생산량의 절반 수준이다.

- 해삼: 2021년부터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으로 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산청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리 의지 부족이 불법 조업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 여섯갈래 민꽃게(mud crab): 현재 수산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파푸아만 지역 외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획 및 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산청에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 조업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명확한 진단을 못 내리고 있다.
- 참치: 영세한 노후 조업선 1척이 전부인 참치조업은 가공 기술 및 사회 인프라 부족, 고비용/저효율 생산 기반으로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양화로 접어들었다. PNG는 가공 공장에 대한 외국 투자(통조림 공장)를 환영하고 있으나, 조업선 부족, 고비용, 정책의 부재로 어떠한 투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직접 투자는 어려우나, 일본 및 중국의 재정적·정책적 지원 대비 PNG 현실 이해 부족으로 자원 확보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 ① 현대화된 수산업 제도 도입 지원 ② 수산 연관 산업 활성화 ③ 새 전진기지 확보 ④ 노후 선박 양도 등의 방향으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892	'24.5.8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



꽂치김치찌개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꽂치 2마리(또는 꽂치캔 2개), 김치 1/4 포기, 양파 1/2개, 대파 1/4개,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물 500ml
- 양념장 재료: 다진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된장 2작은술, 국간장 약간, 후추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김치를 한입 크기로 자른 후 양파는 채 썰고, 대파, 청고추, 홍고추는 어슷하게 썬다.
- ② 달군 냄비에 김치를 볶다가 꽂치, 양념장, 양파, 물 500ml 넣고 푹 끓인다.
- ③ 대파, 청고추, 홍고추를 넣고 완성한다.



5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736달러

5월 9일 기준 746달러

5월 9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4.19달러, WTI 가격은 79.26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3.88달러를 기록하였다.

5월 9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746달러로 4월 9일(815달러) 대비 약 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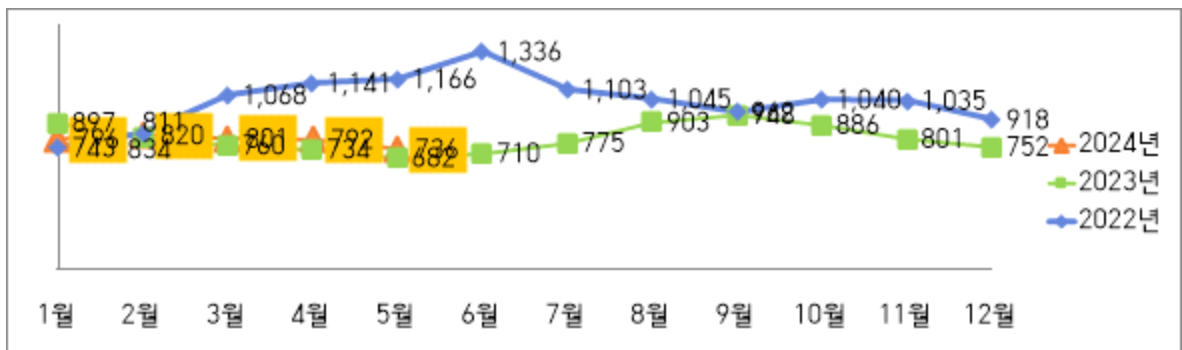
5월 평균(5.1~5.9) 가격은 736달러로 전월 평균(4.1~4.30)인 792달러 대비 약 7% 하락하였다. 전년 5월 평균보다 8% 상승하였고, 전전년 4월과 비교하면 37% 하락하였다.

2024년 평균(1.2~5.9) 가격은 796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1%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3%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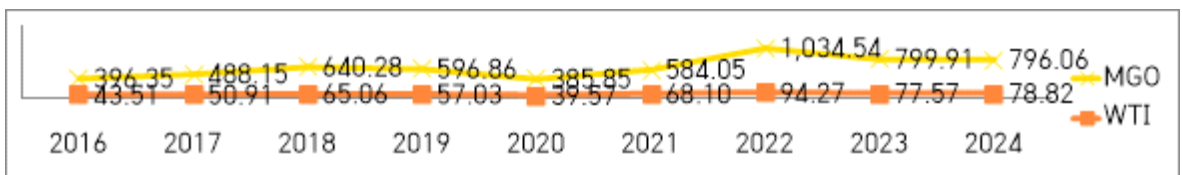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5월 초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연준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에너지정보청의 2024년 유가 전망 하향, 하마스의 휴전 협상 수용 발표, 원유 수요 부진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가 연이은 대형프로젝트 투자로 자금난에 직면한 가운데, 외화를 벌기 위한 사우디의 감산 주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당분간 사우디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OPEC+ 감산 연장 우려로 인하여 5월 중순 다소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의 국채 발행 추진, 미국 연후로 인한 자동차 이용 증가 예상, 캐나다 산불로 인한 석유 생산 차질 우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교착 등 또한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태평양 가다랑어 3월 어획, 2월 대비 12% 증가 3월 어획량 약 12만 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의 참치 어업 노력량이 3월에 증가하면서, 가다랑어 어획량은 2월 대비 12% 증가하였다.

중서부태평양의 3월 어업 노력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한 3,893일을 기록하였다. 3월에 나우루 협정당사국(이하, PNA) EEZ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3,561일로, 2월 대비 16% 증가하였다. 공해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28%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어업 노력량이 보고된 곳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제도 EEZ로, 해당 수역의 어업 노력량 총합계는 전체의 약 64%에 달한다.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EEZ와 공해상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한층 더 감소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서부태평양에서 참치가 서부 수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3월 선망 어획량은 12만 1,012톤으로, 2월 어획량 대비 2만 1,141톤 증가하였다. 2월에는 어획량이 1월 대비 36%나 감소한 바 있다. 이러한 어획량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동안의 어획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월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방콕 가공 허브로의 공급량이 저조해지면서, 가다랑어 어가 저하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물량이 증가한 3월 어획분이

현재 태국과 필리핀으로 이동 중이다. 4월 말 가다랑어 어가는 톤당 1,315달러로 4월 초 대비 10달러만 하락하였고, 소식통에 따르면 어가는 톤당 1,3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일 평균 어획량은 일일 31톤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월별 일일 평균 어획량인 30톤에 근접한 수준이다. 공해에서의 어업 노력량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망선단은 공해에서 일일 평균 40톤을 어획하였다. PNG는 일일 평균 32톤을 기록하였다. 키리바시와 마셜제도는 일일 15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각각 46%, 28% 감소한 수치이다.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제도, 토켈라우, 투발루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1~36톤 선으로 보고되었다.

가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28톤으로 유지되었으나, 어업 일수가 증가하면서 3월 총어획량은 10% 증가하였다. 선망선단의 황다랑어 소형(9kg 미만) 일일 평균 어획량은 1.4톤, 대형(9kg 이상)은 1.5톤이다. 2월에는 각각 0.9톤, 1.1톤을 기록하였다.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소형, 대형 모두 0.03톤으로, 대형은 8% 증가하였고, 소형은 25%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26일자



중서부태평양 3월 전재량 17% 증가

3월 7만 6,166톤...3/4가 중서부태평양 서부 수역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의 3월 전재량은 참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17% 증가하였다. 전재량의 3/4은 중서부태평양 서부 수역에서 이루어졌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의 운반선 전채 활동은 수개월간 저조하였으나 3월에는 급증하였다.

PNA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 증가와 어획량 증가로 인하여, 선망선단의 전재량은 7만 6,166톤을 기록하였다. 초기에 전채한 운반선들은 곧 방콕 또는 제너럴산토스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근 태국 가공업체의 수요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면 가다랑어 어가는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전재량은 2월 전재량인 6만 4,866톤에서 17% 증가하며 2023년 10월 이후 월간 전재량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일부 선박의 전재량은 PNA 발표치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마이크로네시아는 2023년 5월부터 월간 전재량이 5,000톤 미만에 머물렀고, 2월에는 전채 내역이 없었으나, 올해 3월 전재량은 약 2만 9,000톤까지 급증하였다. 이는 3월 전체 전재량의 약 38%에 해당한다.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파푸아뉴기니(이

하, PNG)와 12%를 차지하는 솔로몬제도와 합치면, 서부 수역의 전재량은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3월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전체의 21%를 차지하였다. 어획량은 전체의 약 20%이며, 이는 29% 증가한 수치이다.

키리바시에서의 3월 전재량은 약 1만 7,000톤으로 전체의 약 23%에 해당한다. 키리바시에서는 자국 수역 및 토켈라우, 나우루, 공해 어획물이 전채된다. 마셜제도는 2023년 6월 이후 매년 2만 톤 이상이 전채되었으나, 3월에는 전채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다.

엘니뇨는 적도 주변의 태평양 수역에서 약화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 지수(SST)에 따르면, 이상 징후는 3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발생하였고, 온도 변화는 섭씨 +0.5도~+1.0도였다. 미 해양대기청(NOAA)은 4월부터 6월까지 'ENSO 중립(태평양 적도 수온에서 큰 변동이 관측되지 않는 상태)' 상태를 예측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 해수면 온도 하강으로 인한 라니냐 현상을 예상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29일자



태평양 황다랑어 어획, 24년 들어 저조한 수준 작년 중순 이후 하락세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선망 어획량이 수개월간 저조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대형,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3월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속되는 저조한 공급량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월 중서부태평양 주요 참치 어종 선망 어획량은 12만 1,012톤이며, 평균 일일 어획량은 31톤이다. 소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1.4톤, 대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1.5톤이다. 선망선단의 선박조업일 수제도(이하, VDS) 사용 일수가 3,893일임을 감안하면, 3월 전체 황다랑어 어획량은 1만 1,290톤이다. 지난 수년간의 3월 어획량과 비교하면, 2024년 3월의 일일 황다랑어 어획량은 대형과 소형 모두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2023년 중순 이후 하락세이다. 2024년에는 1월부터 이미 대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이 전월 대비 60% 감소한 2톤 미만을 기록하

였고, 소형은 1톤가량을 기록하였다. 1월 전체 황다랑어 어획량은 1만 800톤이었고, 2월에는 보다 감소한 7,014톤이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6월은 대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이 9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일일 8.5톤을 기록한 2022년 8월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수준으로 관측된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데이터에 따르면 선단(주로 선망선)은 동부태평양에서 2024년 1~3월 동안 황다랑어 3만 7,365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어획량인 2만 9,104톤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수치이며, 데이터가 3월 3일까지만 집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1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15달러

4월 초 대비 5% 하락

태국 방콕 가공 허브의 가다랑어 거래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과, 참치 통조림 생산업체들의 미온적인 수요로 인하여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3주 전 대비 약 1% 하락한 톤당 1,315달러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1,300달러에서 1,350달러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었고, 더 낮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도 있다.

한 주요 가공업체 측에 따르면 태국산 가공업체에 대한 원어 공급은 충분하나 수요가 적고 대형 생산업체만 참치를 구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는 재고가 가득 찬 상황이다.

3월 초 방콕 병목 현상으로 이어진 공급 과잉이 완화되었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수개월간 대량의 가다랑어 선망 어획이 발생한 이후, 2월에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선박의 1일 어획량은 26톤으로, 1월 대비 40% 감소하였다. 2월분은 이미 방콕에 도착하였다.

한 무역 전문가에 따르면, 5월 말은 방콕 참치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시장 심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22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75달러

전월 대비 약 5% 하락

가다랑어 공급 호조로 인하여 만타의 참치 통조림 가공 공장에 원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고, 이에 따라 어가가 하락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만타에서 냉동 가다랑어 원어 계약은 톤당 1,350달러에서 1,400달러 선에 체결되고 있다. Atuna에 따르면 5월 초 가다랑어 가격은 전월 대비 5% 하락한 톤당 1,375달러이다.

가다랑어 가격은 3월에 많은 양륙량에도 불구하고 톤당 1,500달러로 상승한 이후 하락 추세이다. 만타 어가는 톤당 1,315달러 수준인 방콕 어가보다 여전히 높다.

동부태평양 조업은 가다랑어 선망 어획량이 많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인다. 한 주요 가공업체 측에 따르면 만타의 냉동 저장고에 공간이 없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원어 하역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가공업체 측은 최소 7월까지 주문을 받은 상태로, 공장을 최대로 가동하는 중이다. 다수의 공장이 원어 재고량을 충분히 보유 중이기 때문에, 공급량 증가는 결국 거래 둔화를 유발하여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1일자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250유로

3월 대비 약 6% 하락

인도양에서의 가다랑어 선망 어획량은 지난 4주간 회복되지 않았다. 계속되는 어획량 부진과 세이셸 어가 하락으로 인하여, 수산업계와 가공업계의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은 3월 가격(톤당 1,325유로) 대비 5.7% 하락한 톤당 1,250유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망선단은 이미 모잠비크 해협에서의 조업을 마쳤고, 새 어획 수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다랑어는 역사적으로 5~6월 사이에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초에 시작되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2년간 지속된 어획량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일부 어업 회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가공업체인 Prince Tuna와 Indian Ocean Tuna(이하, IOT)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들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으며, 공급되는 원어는 1~2kg의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편이다.

모리셔스에 있는 Princes Tuna 공장에 대한 공급은 정부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금어기를 발표하면서, 모리셔스 EEZ에서 자발적인 금어기에 직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어는 세이셸에서 구매하여 가공 공장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톤당 비용은 보

다 높아진다.

세이셸에 위치한 IOT 공장은 원어가 매일 빅토리아항에 도착하고, 모기업인 타이유니온을 통하여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된 가다랑어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은 편이다.

현재 대형 황다랑어는 거의 어획되지 않는 상태이며, 어획 부족으로 인하여 가격은 3월 가격(톤당 2,250유로)에서 2.2% 상승한 톤당 2,300유로를 기록하였다.

4월 초 세이셸 수산부 장관은 엘니뇨 현상이 지난해 국적선 황다랑어 어획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업계 소식통들은 태평양 지역 엘니뇨가 아니라, '인도 엘니뇨'로 불리는 '인도양 다이폴(Indian Ocean Dipole, 인도양 열대 해역의 동부에서는 수온이 낮아지고, 서부에서는 수온이 높아지는 대기해양현상)'과 더 연관이 있다고 관측하였다.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주 엘니뇨 지수는 +0.57 °C였으며 향후 4개월 동안 +0.4 °C에서 -0.4 °C 사이에서 기준치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23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3월 수입 가격, kg당 809엔

2월 대비 수입량 약 1,000톤 증가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3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492톤(전년 대비 16% 증가), 수입액 6억 9,700만 엔(22%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3,233톤(12% 증가), 수입액 143억 9,900만 엔(2% 감소), 가공품 수입량 3,596톤(17% 감소), 수입액 30억 9,000만 엔(10% 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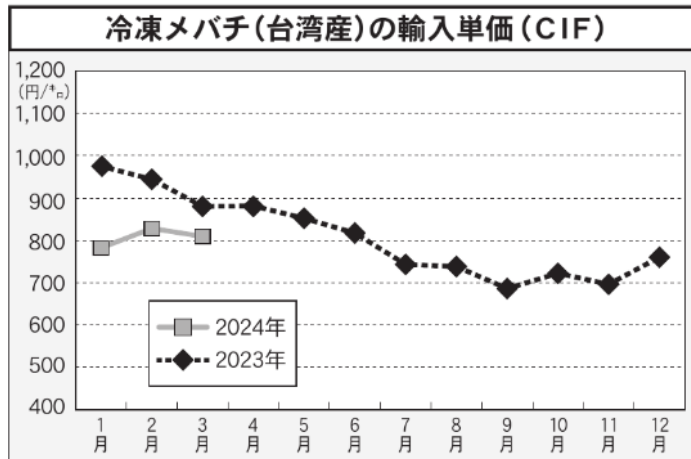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3,974톤(9% 감소)이며, 이 중 가장 수량이 많은 대만산 수입량은 2,319톤(12% 감소)이다. 전년도 동월과 비교하면 감소하였으나, 올해 2월과 비교하면 약 1,000톤 증가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 어획 눈다랑어의 평균 단가는 kg당 809엔으로, 2월 단가인 kg당 828엔 대비

하락하였다. 운반선 대기가 계속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쉬운 상황이 되었고,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수입량 증가 요인 중 하나는, 냉동 컨테이너선으로 운반된 어획물의 증가가 있다. 또한 운반선의 운항 일정에 대폭 차질이 빚어지면서, 입선 시기에 편차가 발생한 것도 문제로 지목받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시적으로 운반선 대기 문제가 해소되어, 3월까지 입선이 적어져 어가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운반선의 입항 시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가격이 하락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5월 8일자



(일본 냉동 눈다랑어 2023년 1월~2024년 3월 수입가격)



日 냉동 참치류 3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97톤 수입

〈 2024년 3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날개다랑어	한국	25	6	34
	대만	330	12	490
	바누아투	-	-	121
	기타	109	299	572
	소계	464	317	1,218
황다랑어	한국	261	148	76
	중국	425	472	624
	대만	1,798	970	1,118
	필리핀	-	-	49
	인도네시아	-	-	-
	미국	-	-	-
	바누아투	36	26	212
	피지	-	-	13
	카리비시	-	-	-
	마셜제도	-	-	45
	기타	1,359	630	289
소계	2,869	2,245	2,426	
눈다랑어	한국	259	225	297
	중국	202	755	808
	대만	1,928	1,438	2,319
	필리핀	-	-	-
	인도네시아	-	-	-
	세이셸	470	461	119
	바누아투	52	17	378
	기타	110	4	378
	소계	3,020	2,901	52
남방참다랑어	한국	-	158	17
	대만	95	143	1
	호주	-	-	19
	소계	95	-	37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5월 8일자



태평양 도서국, 미국과 참치 조약 체결

美, 국가 식량 안보 강화 노력

198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 포럼 수산기구 간의 남태평양 참치 조약이 최근 갱신됨에 따라 미국 참치 선단은 17개 태평양 도서국의 EEZ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3월 28일 피지 수바에서 미국 국무부와 태평양도서국가포럼 수산기구(이하, FFA)는 참치 조약에 서명하여 미국 선망 선단이 조약 당사국인 17개 태평양 도서국의 EEZ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남태평양 참치 조약은 원래 1988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최근 갱신된 조약은 2033년 6월까지 지속된다. 조약에 따라 조업하는 미국 선단은 2024년 이후 합의된 개정안과 조약의 개정된 문안이 공식 채택될 때까지 태평양 도서국 당사국의 EEZ에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된 조약 패키지에는 미국 참치 어선에 조업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2023~2033년) 미국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6천만 달러 외에 업계가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간 지급금 외에도 미국 정부는 2023년에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 개발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 당사국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미화 1,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 당사국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확대는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되는 경제적

도전과 기후변화의 환경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있어 시의적절하며 매우 필요한 것이다."라고 FFA 사무총장 마누 투푸-루센 박사는 기관 보도자료를 통해 말하였다. "참치 조약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초석이다. 또한 불법 어업 퇴치 및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루센 사무총장은 또한 이 조약이 "미래 세대를 위해 참치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개발·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2023년 10월 남태평양조약법의 초당적 의회 통과로 조약의 종료를 승인하였다. 아메리칸 사모아의 아우무아 아마타 하원의원은 "의회는 이 중요한 조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명확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태평양에서 협상된 참치 협정이 우리 선단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참치 생산은 지속해서 장애물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외교적, 입법적 노력은 우리 선단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미국의 모든 정책 입안자는 참치를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한 식품 공급원으로 지원하여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Nationalfisherman, 2024년 4월 16일자



NGO “中 인도양서 조직적 인권침해·IUU 자행”

中 정부 연루 주장...IOTC 조치 촉구

환경정의재단(이하, EJF)은 최근 조사 보고서인 ‘Tide Of Injustice’에서 중국 참치연승 선단이 외국 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중 이라고 주장하였다. EJF는 중국 정부가 이에 연루되 었다고 주장하며,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EJF는 인도양 조업 중국 선단에 승선한 선원 44인 의 인터뷰와 복수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조사 보 고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조사는 86건의 특이 인권 침해 및 어업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 중 53건의 연승선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절반은 중국 국영기업 소유이거나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있는 선박으로 드러났다.

인터뷰 대상자인 선원 44인(인도네시아인 28인, 필리핀인 16인)은 선박 27척에 승선하였고, 이 중 24척은 AIS 신호 추적에 따르면 2023년 남서부 인 도양에서 조업하였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 중 79.5%가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목격하였고, 59.7% 가 쥐가오리, 범고래, 돌고래, 거북이 등 취약 해양 종을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어획하는 장면을 목격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전원이 가혹한 선상 노동 및 생활

환경을 언급했고, 95.5%가 과도한 초과 근무가 있 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약 절반이 물리적 폭 력을 경험했고, 70.5%가 위협과 협박을 당했으며, 약 3/4가 신원증명 서류를 압수당했다고 응답하였 다.

EJF는 해당 사안에 가장 많이 연루된 기업으로 Shangdong Zhonglu, Zheijang Ocean Family(13건), CNFC overseas Fisheries(3건)를 언급하였다. Shangdong Zhonglu의 자회사인 Oceanic Fisheries와 Haiyan Oceanic Fisheries는 19건의 사례에 연루되었다.

EJF는 중국 국적 연승선 95척과 파나마 국적 냉동 운반선 4척이 남서부 인도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이 중 47%가 인권 침해 및 IUU 어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박은 대부분 공해에서 활동하며, 탄자니아 EEZ에서 조업을 허가 받은 선박은 30척이다. 어획된 참치는 모리셔스 포 트루이스항 양륙 또는 해상 전재를 통하여 EU, 미 국, 일본,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15일자



과학자 “IOTC, 타 RFMO 배정 방식 참고해야”

과거 어획량 할당 방식에서 변화 요구

IOTC는 지난 수년간의 과거 어획량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 어획 한도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 연구는 회원국에게 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이하, RFMO)의 지역기반 관리 및 현대 어업관리 원칙에 대한 어획 한도 할당 프로세스 구축 방식에서 힌트를 얻을 것을 자문하였다.

RFMO 보존조치의 가장 복잡하고 논쟁적인 부분은 회원국 간 참치 어획 한도 할당이다. 호주국립해양자원안보센터(이하, ANCORs), 스위스 제네바대학, NGO단체 블룸협회(Bloom Association), 고네다우(Gonedau) 재단 등은 3월 21일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입어 협정과 어획량 할당 논의 간의 연결고리를 풀기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하, UNCLOS)’, 입어 협정, 국가법 등을 분석하였다.

연안국은 EEZ에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나, UNCLOS 규정은 연안국이 자국 수역의 자원을 최선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 접근 협정은 수수료 또는 보상의 대가로 타국이 자국 수역의 수산 자원을 어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논문은 대부분의 정부가 어획 관리 규칙, 어획량 한도 및 할당 등을 통하여 RFMO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원인이 참치 남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연구진은 참치를 ‘선진국인 원양산업국(이하, DWFN)’과 직접 어획할 수단이 없는 개발도상국인 연안국 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입어 협정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인도양에서 해외 국가들은 연안국 EEZ 참치 어획을 위하여 수년간 입어 협정에 투자해 왔고, 이는 쿼터 할당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EU, 일본, 한국은 1980년대부터 인도양에서 조업하였다. EEZ 어획물을 선박의 국적에 할당하는 것은 연안국의 주권 행사를 약화시키고, ‘이중 불평등’을 초래하며, ‘잉여’ 어획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어로 인하여 저평가되고 있으며 해외 기선국의 미래 쿼터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과거 어획량(historical catch) 개념이 RFMO에 의한 어획량 할당의 핵심 지표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UNCLOS 관할 체계나 입어 협정 조건에서는, RFMO가 연안국 EEZ 어획량에 따라 해외 기선국의 어획 할당을 배정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연구진은 주장하였다.

IOTC는 어획량 할당 체계(catch allocation system)가 없는 유일한 RFMO이다. 해외 원양어업



국은 입어 협정에 따른 인도양 참치 입어를 영구적인 '어획 할당량의 가장 큰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입어 협정을 체결할 때 해외 원양어업국이 사용하는 '윈-윈' 또는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라는 수사법은 어획 할당 협상 동안 어족 자원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진은 증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를 EEZ와 공해에 걸친 어획 배분의 참고 사례로서 언

급하였다. WCPFC는 2009년부터 선망 어업 일수 제도를 우선적으로 규제하여 EEZ의 어업 노력량을 각 연안국에 할당하고, 선진국의 공해 어업에 대하여 기선국 한도를 부과하고 있다. EEZ 선망 어업 배분은 선망선단이 WCPFC에서 합의된 하위지역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일수제도를 통하여 참치 어획량을 관리하는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의 관리를 받는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12일자

그린피스, 美 정부에 범블비사 제재 촉구

대만 연승선 강제노동 문제 원인

그린피스가 대만 연승선 DaWang호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린피스는 국제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에 FCF사 산하 참치 어업회사인 범블비의 참치 제품에 대한 공개적 제재 처분을 촉구하는 전례 없는 요구를 하였다.

그린피스 미국지부는 DaWang호의 어획물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범블비 참치 제품을 2022년 미국 버지니아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견하였다. 그러나 CBP는 이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그린피스는 보류해제명령(이하, WRO, 미국 세관에서 규제 제품을 압류하고 일정 기간 내 수출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CBP 직권으로 파기 처분하는 조치)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하는 미국법에 따라 이러한 참치 제품의 유입을 규제하도록 관계자에게 촉구하고 있다. DaWang호의 참치는 2020년 8월 선상 인권침해 혐의로 인하여 WRO를 받은 바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6일자



美, 수산물 통조림 매출 성장세

시장 점유율 감소에도 판매 수익 성장

미국인들은 30년 전보다 약 30% 더 많은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지만, 취향과 선호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인들은 1인당 20.5파운드의 수산물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 습관의 변화는 수산물 통조림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섭취한 수산물 중 약 63%가 신선하거나 냉동된 것이었다.

미국 기관은 1990년에는 수산물 통조림이 전체 수산물 소비량의 35%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18%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소매 시장 정보 회사인 서카나(Circana)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통조림 업계의 판매 수익은 성장세를 보인다. 언더커런트 뉴스에 따르면 2018년 23억 달러였던 매출은 올해 들어 27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 속에서 업계의 적응력을 반영한다.

"이것은 공급이 어떻게 수요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라고 서카나의 부사장은 말하였다.

"1990년에는 신선한 생선을 매장에서 찾기 어려웠고, 소비자들은 대부분 냉동 생선이나 통조림 생선을 주로 선택하였다. 이제 소비자들은 중대형 도시의 슈퍼마켓에서 거의 모든 주요 어종을 찾을 수 있다. 신선 및 냉동 생선을 더 많이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다."

부사장은 신선 및 냉동식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생선 및 수산물 통조림의 판매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NOAA 데이터 및 서카나의 판매 수치는 최근 수산물 통조림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틱톡(TikTok)은 다른 그림을 그렸다.

이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2022년 여름부터 통조림 생선 데이트, 리뷰, 요리 창작물을 소개하는 많은 동영상들 통해 통조림 수산물의 인기를 급상승시켰다.

통조림 생선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미국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피쉬와이프 통조림 수산물(Fishwife Tinned Seafood Co.)은 최근



설립자가 TV 쇼 Shark Tank에서 이 프로젝트를 소개한 후 주식 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식당 메뉴에 통조림이 추가되고, 타임스 스퀘어에 생선 통조림 전용 시장이 열렸으며, 비건 옵션, 구독 서비스 및 전문 요리책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수산 과학자이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에밀리 드 수사는 화요일 언더커런트에 "신선하고 냉동된 수산물이 보존된 옵션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제작자가 매주 '통조림 생선 데이트'를 기록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그녀는 강조하였다.

그녀는 오늘날의 수산물 통조림 트렌드가 평범한 참치를 뛰어넘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뉴욕 타임스의 인터뷰에서 작가 아나 헤젤은 통조림 수산물을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럭셔리'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틱톡 트렌드, 통조림 생선 구독 박스, 화려한 뉴욕 타임스 기사에 등장하는 통조림은 일반적인 2달러짜리 참치가 아니다. 이러한 통조림 중 일부는 30달러가 훨씬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라고 에밀리 드 수사는 말하였다.

분석 회사 컴스코어(Comscore)에 따르면 미국 틱톡 사용자의 약 60%가 16~24세인 만큼, 열망과 사치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다.

하지만 드 수사가 지적했듯이 통조림 생선 트렌드의 매력은 소비자 인구 통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로 부유한 밀레니얼 세대, 미식가, 요리를 좋아하는 맛별이 가구가 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소득 수준이 낮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선 및 냉동식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라고 드 수사는 말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드 수사는 통조림 생선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며,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부문에 걸쳐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궁극적으로 생선 통조림 트렌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다만 팬데믹 동안,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우선시하던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17일자



냉동 참치 시장, 2032년까지 2배 성장 전망

초밥 등 글로벌 수요와 전자상거래 확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가 발간한 '냉동 참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냉동 참치 시장은 2022년 66억 달러 규모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하여 2032년 1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동 참치'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획한 후 즉시 냉동한 참치를 말한다. 참치는 인기 있는 생선 종류이며, 냉동은 생선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산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참치를 냉동하면 부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의 성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보존 방법은 운송 및 보관 중에 생선의 맛과 식감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트렌디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초밥과 생선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체 초밥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참치 및 냉동 생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냉동 참치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이 되었다. 냉동 참치는 바다에서 어획, 가공, 냉동되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가 더욱 쉽다. 따라서 운송 중에도 참치의 품질이 유지되고 유통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신선한 참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고품질 참치를 이용할 수 있다. 냉동 참치는 계절에 따른 참치 수급의 변화와 관계없이 연중 내내 필수 성분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밥 및 회 전문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요리의 높은 인기에 기여하고 있다. 참치를 냉동하면 참치의 품질, 식감, 맛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생선의 신선도가 중요한 초밥과 생선회 요리에 매우 중요하다.

냉동 참치를 사용하면 고객에게 고품질의 식사 경험을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다. 냉동 참치는 신선 참치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따라서 신선한 제철 참치와 관련된 잠재적인 비용 변동 없이 초밥과 생선회를 즐길 수 있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 옵션이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지리적 제약 없이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냉동 참치 공급업체는 전 세계 고객에게 접근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냉동 참치 제품을 검색, 선택, 구매할 수 있어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이 브랜드를 강조하고 인지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매력적인 제품 설명, 비주얼, 고객 리뷰를 통해 기업은 온라인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

* 출처: Newswires, 2024년 4월 23일자



MSC 참치, 매출 상승세 지속

22/23년도 약 19만 톤 판매

해양관리협회의(이하, MSC)는 5월 2일,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MSC 인증 제품의 개요를 제공하는 2024년도 지속가능 참치 연보를 발표하였다. 연보에 따르면 2022/23년도 전 세계 MSC 인증 참치 제품 판매량은 약 19만 톤이다. 독일 소비자들은 최다 구매자 위치를 계속해서 지켰다.

MSC 인증 참치 어획량은 2012년 약 10만 톤에서 2023년에 약 160만 톤까지 꾸준히 성장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어업이 조업하는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되었다. 최대의 선망선단을 보유한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은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합쳐 약 69만 톤을 어획하였다. 현재 전 세계 참치 어획량 중 약 33%가 MSC 인증을 받았고 추가로 20%가 인증 평가 진행 중이다.

MSC 참치 제품의 판매량은 5년 전 약 5만 톤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몇 배로 증가한 약 19만 톤을 기록하였다. 다만 MSC는 제품에 사용된 인증 참치의 양만이 아니라 제품의 총 순중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MSC 참치 물량은 이보다 적다.

MSC에 따르면 Aldi는 미국과 영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유럽 최대 MSC 인증 참치 브랜드인 Rio Mare는 선두 자리를 유지하였다. 에콰도르에서의 MSC 참치 생산량은 약 2배로 증가하였다. 연보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MSC 인증을 받은 에콰도르 선망선단은 2022년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업, 2023년 가다랑어 어업 인증을 받으며

MSC 인증 참치 물량을 늘렸다.

MSC 인증 참치의 최대 소비 국가는 독일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다. 2022/23년도 독일에서는 3만 9,769톤이, 미국에서는 3만 4,008톤이 판매되었다.

현재 전 세계 254개 브랜드가 MSC 인증 가다랑어를 판매 증으로, 2015년(49개 브랜드)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하였다. 총 125개 브랜드가 MSC 황다랑어 제품을, 130개 브랜드가 날개다랑어 제품을 판매 중이며, 이는 2015년(1개, 76개)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MSC는 2023/24년 약 22만 톤의 MSC 라벨 참치 품목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량의 4분의 3은 통조림 부문 매출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소비자들은 2022/23년에 1만 5,360톤의 MSC 인증 참치를 구매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이자 2020/21년보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MSC의 예상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는 이 수량이 2만 5,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테스코와 프린스 같은 주요 브랜드에서 2025년까지 100% MSC 인증 참치를 판매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영국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받는 참치를 구매하는 양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체는 수산업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일자; The Grocer, 5월 3일자



태국 2024년 1분기 원어 수입 대폭 증가 전년도 1분기 대비 약 40% 증가...한국산 원어 수입 급증

2024년 1분기 태국 가공업체의 원어 수입량은 약 5년 만의 최고치인 21만 9,729톤을 기록하였다. 가다랑어는 전체 물량의 약 84%를 차지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2024년 1분기에 태국 항구에 도착한 원어가 2023년 11월~2024년 1월 중순 동안 전재된 물량이라는 점이다. 12월부터 1월까지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항구에서 월평균 약 8만 6,000톤이 전재되었고, 2월에는 약 6만 807톤이 전재되었다.

2024년 1분기 냉동 가다랑어 원어의 가격은 약 12% 하락한 톤당 1,633달러이다. 이는 모든 주요 상업용 참치종의 평균 가격이다. Atuna에 따르면 방콕 냉동 가다랑어 가격은 1월에 톤당 1,480달러였고, 3월 말 들어 톤당 1,315달러로 급락하였다.

2024년 1분기 동안 태국의 한국 선망선단 어획 참치 원어 수입량은 3만 9,662톤으로, 2023년 1분

기 대비 약 2만 4,000톤 증가하였다. 한국산 원어의 가격은 톤당 1,500달러로(대부분 가다랑어), 전년도 동기 대비 16% 하락하였다.

대만산 원어 수입량은 3만 3,883톤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등하게 유지되었다. 마이크로네시아산의 수입량은 1만 8,773톤이나 증가한 3만 3,317톤을 기록하였고, 단가는 전년 대비 약 150달러 하락한 톤당 1,555달러였다.

태국 가공업체는 또한 가다랑어를 주로 판매하는 키리바시, 투발루, 마셜제도 선단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렸다. 특히 투발루산은 1만 3,962톤으로 수입이 전년 대비 1만 톤 이상 증가하였다. 몰디브 채낀기 선단의 태국행 수출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33% 감소한 1만 3,993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28일자

베트남, 해외 시장으로 참치 수출 늘려 참치 수출 이익 19% 증가

베트남은 올해 1분기에 참치 수출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공급 지역은 전 세계 86개국이라고 Fishnews 특파원이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이하, VASEP)의 정보를 인용해 보고하였다.

미국은 3,200만 달러(2022년 수준 대비 16% 증가)의 점유율로 여전히 주요 수입국이다. 또 다른 중요한 시장인 EU로의 수출도 30% 증가한

1,9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불안정한 시기를 보낸 후 러시아 시장으로의 베트남 참치 수출은 3월에 4%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VASEP은 홍해의 무역로 보안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올해 베트남 참치 수출업체는 물류비용 증가 및 배송 시간 증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5월 8일자



과학자,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자원 상태 경고 황다랑어 자원 보호 관련 전략 및 비전 요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수산 과학자, 정책 입안자, 전문가들이 최근 진행된 대표단 회의에서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자원 보호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황다랑어 자원의 추가적인 붕괴 위험을 피하고자 "더 강력한 집단적 비전과 지역 전략"을 촉구하였다.

대표단은 황다랑어 자원이 (현재 남획 상태인) 인도양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강력한 어획 전략을 보장하는 등 더 엄격한 조치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에 촉구하였다.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자원은 '건강' 범주이다.

WWF의 서부-중부 태평양 참치 프로그램 매니저인 버바 쿡(Bubba Cook)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인도양의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리 실패는 황다랑어 자원의 지속적인 남획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는 우리가 관리 접근 방식에 소홀해지면 중서부태평양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라고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국의 한 과학자는 기후

변화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합의된 관리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황다랑어 자원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황다랑어 개체수를 보전할 수 있다.

남획과 해수 온도 상승은 중서부태평양 참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참치 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여러 연안국의 어획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어획량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향후 3년 동안 황다랑어와 가다랑어의 어획량을 10%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제4차 참치 이해관계자 회의가 세계 참치의 날인 5월 2일에 개최되었다. 1, 2, 3차 회의는 2022년 8월(마닐라), 2023년 3월(방콕), 2023년 11월(방콕)에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다른 주제로는 소규모 참치 어업 지원, 참치 치어 어획량 감축, IUU 어업 근절 및 식량 안보 강화 등이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6일자



바다의 송아지 고기, 참치

어떤 식품 형태로든 영양소 대부분을 유지

참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 중 하나이다. 풍부한 풍미, 조밀하고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몸에도 좋다-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참치는 "바다의 송아지 고기"라고 불린다. 참치에는 미오글로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매우 영양가가 높지만 동시에 몸매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참치는 고등엇과의 포식자로 태평양, 인도양과 대서양에 서식한다. 일부 기간에는 지중해, 흑해와 동해까지 진입한다. 참치는 크기가 50cm에서 4미터에 이르는 대형 물고기로, 무게는 최대 600kg에 이른다. 참치의 주요 먹이는 정어리, 연체동물, 갑각류이다. 참치는 "스포티 한" 물고기로 시속 75km까지 가속할 수 있다. 빠른 가속력으로 육즙이 많은 고기와 비슷해지는 근육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각 참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줄까?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고기에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으며 열량은 100g당 130kcal이므로 운동선수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참치 스테이크는 최고의 동반자이다.

참치는 코발트 함량의 챔피언이다. 100g의 생선에서 이 미량 원소의 함량은 일일 기준보다 4배 더 높다. 같은 양의 물고기에서 크롬의 함량은 일일 표준의 두 배이다. 또한 참치에는 비타민 B, A, D, E,

인, 요오드, 유황, 칼슘, 칼륨, 셀레늄, 나트륨 및 마그네슘이 많이 있다. 당연히 불포화 오메가-3 지방산도 빠질 수 없다.

이러한 풍부한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여 죽상동맥경화증, 심장 마비 및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참치 섭취는 또한 건강한 뼈와 치아, 갑상선, 신경계 및 소화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참치를 포함한 생선 섭취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수준의 비타민 D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치의 높은 비타민 A 함량은 시력을 보존하고 노화와 관련된 변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A는 또한 활성 산소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조기 노화와 위험한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참치 살코기에 풍부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비타민 E는 생식 및 내분비계의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에도 필요하다. 참치는 어떤 식품 형태로든 대부분의 유용한 물질을 유지한다.

* 출처: Kuban24.tv, 2024년 4월 5일자



EU 올리브유 가격 3% 하락 가뭄·홍작으로 추가적 하락 가능성 낮아

최근 국제해양탐사협의회(ICES) 해양과학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는 황다랑어의 음향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선망 어업에서 남획과 혼획을 줄이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선망 어업은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를 잡기 위해 어군집어장치(FA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주파수에 걸쳐 고유한 음향 신호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어종을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선망 어업자는 표류하는 집어등(FAD) 아래에서 참치의 양을 감지하고 평가하기 위해 에코사운더 부표에 크게 의존하지만, 각 어종의 주파수별 음향 반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어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세 가지 특정 주파수에서 황다랑어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선망 선단에게 에코사운더 부이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고 말하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러한 혁신은 특정 참치 어종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목표종 어획 능력을 변화시켜 의도하지 않은 어획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은 이 계획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17일자

글로벌 식물성 기름 가격, 높은 수준 유지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 4월 가격 톤당 7,600유로

3월 FAO 식품 가격 지수는 118.3 포인트로 2월보다 1.1% 상승하였다.

EU 최신 정보에 따르면 4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 가격은 3월 대비 3% 상승한 톤당 7,600 유로를 기록하였다. 유럽 집행위원회(이하, EC)에 따르면, 2023년 7월 첫째 주부터 2024년 4월 까지 EU의 해바라기유 누적 수입량은 191만 톤이다. 우크라이나산이 이 중 93%를 차지하였다. EU의 대두유 수입 가격은 톤당 1,083달러로, 전월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국제올리브유협의회는 3월 스페인 하엔의 엑스

트라버진올리브유(이하, EVOO) 가격이 톤당 8,625유로이며, 버진올리브유(이하, VOO)는 톤당 8,160유로라고 발표하였다. EVOO는 2월 대비 1.14% 하락하였고, VOO는 4% 하락하였다.

이탈리아 바리(Bari)의 EVOO 가격은 톤당 9,680유로로, 1월부터 가격을 유지하였다. 2011/2012 수확기부터 2023/2024 수확기까지 평균 가격은 톤당 4,615유로이나, 현재는 약 2배로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15일자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조업 양호

3월부터 평균 어체 크기 감소

민텍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 남대서양 아르헨티나 지역의 오징어 시즌이 시작된 이후 일렉스 오징어가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다. 3월 중 관찰된 시장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일렉스 오징어 튜브 U5 CIF 유럽은 지난달보다 4.87% 상승하여 kg당 4.52달러의 가격에 도달하였다.

- 일렉스 오징어 튜브 U7 CIF 유럽은 지난달보다 10.35% 상승하여 kg당 4.37달러의 가격에 도달하였다.

- 일렉스 오징어 튜브 U10 CIF 유럽은 지난달보다 13.21% 상승하여 kg당 4.37달러의 가격에 도달하였다.

- 일렉스 오징어 링 3~6cm CIF 유럽은 지난달보다 0.4% 소폭 하락하여 kg당 4.74달러의 가격을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수출업자들은 일렉스 오징어 어획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3월 19일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

르면, 2023년 전체 어획량의 55%에 해당하는 8만 5,546톤의 일렉스 오징어가 어획되었다. 여기서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5개월의 조업 기간이 남았으며 지난해 대비 어획량은 29.13% 증가하였다.

하지만 3월에는 오징어 평균 크기가 감소하였다. 어획량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기상 조건으로, 이 때문에 오징어 떼가 분산되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수온 패턴의 변화는 오징어 떼의 수직 분포에 변화를 일으켜 어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르헨티나 어업협의회는 남위 44도선 북쪽으로 구분된 어업 구역에서 일렉스 오징어 어업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으로의 일렉스 공급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동안 포클랜드 제도와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 수역 밖에서 좋은 어획량으로 인하여 오징어 가격은 전주 대비 낮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 출처: Mintecglobal, 2024년 4월 11일자





포클랜드 어업협회장, 남대서양 RFMO 설립 촉구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비하여 서로의 협력이 필요

포클랜드 제도 주변에 매장된 막대한 석유 매장량은 포클랜드 경제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지만, 어업은 2023년 국내총생산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가장 큰 경제 동력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동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남대서양에 위치한 이 섬은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전쟁으로 영유권을 다투었지만,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영국에 속해 있다. 이곳에서는 연중 내내 로리고와 일렉스 오징어, 대구류, 이빨고기 등 다양한 어종을 잡는 선박이 조업하고 있다.

포클랜드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은 어떤 방식, 형태로든 어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면허 수수료와 법인세를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와 섬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을 수는 없으므로 다른 수입원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동안은 어업이 포클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남을 것이다.

포클랜드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는 부분을 제외하고 섬에서 200마일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포클랜드는 외국 조업선, 특히 중국의 원양 선박이 많이 찾는 곳이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수역에서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으로 인해 연간 2,55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해양 자원의 감시 및 통제 능력을 확대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2020년 4월에는 중국 국적의 오징어채낚기 어선 100여척이 선박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끈 채 아르헨티나 영해에 진입하였다. 이들은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선박 한 척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서대서양은 UN이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유일한 수역이며, 포클랜드 제도는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열망하고 있다.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중국의 원양 어선이 많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를 제쳐두고 더 큰 공공이익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4월 23일자



中 어선의 페루 무단 입항...페루 조업 방해 페루 어민, 中 선박의 비정상적 EEZ 진입에 의문 제기

지난 4월 18일 밤, 페루 침보테 항구에서 약 100명의 어민이 중국 대형선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조업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소나페스칼(영세어업단체)이 언더커런트 뉴스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중국 선박은 자국 수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호 대상인 것처럼 무심코 항해하였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문제의 선박은 중국 선박 'JIN HAI 728호'이다. 페루 정부는 외국어선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하여 페루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위성 추적 장치의 외

국어선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페루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4월 4일부터 필수 위성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선박이 페루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동 선박은 승무원 교체 목적인다고 보고하였으나 승무원 변경은 2주 이상 소요되지 않으며 고의적인 미준수 선박 입항이 속출하고 있어, 유사한 중국 선박이 12척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어민들은 선박 감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19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러시아산 명태 H&G 가격, 톤당 1,000달러 돌파 중국 가공업체 재고 부족 원인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가공업체의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러시아산 H&G 명태의 가격이 톤당 1,000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명태 필렛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기준 크기인 25cm 이상 러시아산 명태 H&G의 중국 가격은 2024년 15주 차(4월 8~14일)에 톤당 1,000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승은 2017년 초 홍콩 대기업 Pacific Andes group의 파산으로 인하여 명태 시장에 큰 충격이 닥쳤던 시기를 넘어선 수준이다.

EU가 12월에 대량의 명태 필렛을 수입한 이후 중국에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는 EU의 자율관세할당(ATQ, EU로 수입되는 재화에 특정된 양의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러시아산 H&G를 사용하는 중국산 명태 필렛은 13.7%의 관세가 부과된다.

익명의 한 중국 가공업체 임원에 따르면, 중국에 H&G 재고가 많지 않거나, 또는 서방 국가에 중국

산 가공 완제품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공업체들이 주문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해당 소식통은 중국 가공업체가 25cm 이상 H&G를 톤당 1,000~1,030달러 선에 매입하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러시아 판매업체 소식통 또한 이를 확인하였다고 Undercurrent News 측은 설명하였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가공업체 및 러시아산 H&G 시장이 더욱 제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024년 시즌 미국산 싱글프로즌(Single-frozen, 어획 후 1회 냉동한 제품) PBO(가시 제거) 명태 필렛 유럽 가격은 톤당 약 3,400~3,500달러에 체결되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지로 인해 미국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PBO 필렛에 대하여 톤당 약 200~250달러의 가격 상승 수혜를 누리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17일자



러, 연육 생산량 대폭 증가하며 명태 시즌 종료 국내 시장 명태 공급량 전년비 36% 증가

명태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필렛과 민스 생산량은 보합세를 보였다.

주요 협회는 수요일에 끝난 "A" 시즌 동안 명태 어획량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러시아의 연육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A" 시즌 동안 해상 연육 생산량은 3만 톤으로 전년 대비 거의 40% 증가했으며,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이 러시아의 명태 어획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명태 대부분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어 미국산 명태와 경쟁하고 있다.

미국 생산자들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산 연육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러시아가 연육을 최저가로 시장에 덤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협회의 가장 최근 수치로 2월 미국의 명태 수출량은 1만 5,225톤으로 지난해 수출량 1만 8,770톤보다 19% 감소하였다.

또한 2월 수출 평균 가격은 톤당 2,311달러로 2023년 2월 평균 가격인 톤당 2,931달러보다 21.5% 낮았다.

러시아 명태어업협회(이하, PCA)에 따르면 "A" 시즌 동안 러시아의 전체 명태 어획량은 105만 톤으

로 작년 "A" 시즌보다 8.6% 증가하였다.

명태는 러시아의 주요 상업 어종으로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소비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수출이 감소하였다.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명태 필렛과 민스의 총생산량은 작년 수준인 약 6만 톤에 머물렀다"라고 명태어업협회장은 말하였다.

전통적인 수출 시장이 얼어붙은 러시아는 국내 명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하였다. PCA 데이터에 따르면 생산자들은 2024년 1분기에 전체 명태 어획량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10만 톤 이상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러시아는 모든 어장에서 명태 총허용 어획량(TAC)을 작년보다 10% 증가한 228만 톤으로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주요 어장인 오호츠크해의 TAC는 올해 95만 1,500톤으로 설정되었다. "A" 시즌 동안 이 수역의 어획량은 3.2% 증가한 83만 톤으로 가을철 두 번째 명태 시즌에 12만 톤 정도가 남았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4월 10일자



24년 명태 첫 어기 어획량 15년 중 최고 기록

어획량 증가 추세 형성 및 옵서버 승선율도 증가

러연방 수산청장은 지난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극동 수역 과학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명태 협회장은 A시즌 어획량이 지난 1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오호츠크해에서 82만 7,000톤의 명태가 어획되었으며, 총허용어획량(TAC)의 87%를 소진하였다. 이는 어획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형성된 것에 주목하고 싶다.

협회장에 따르면 어획량 증가에 따라 제품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명태 블록 생산량은 8%, 연육은 40% 증가하였다. 불리한 해외 시장으로 인하여 필렛과 민스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어기 증반에 필렛 생산량의 감소가 30%에 달한 것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이다.

명태 협회장은 명태 트롤 어업의 추세 중 하나는 선박 수 감소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몇 년 동안 관찰되고 있으며, 조업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업 효율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5년간 조업일수는 17% 감소하여 6,910일을 기록하였으며, 트롤선의 조업일수는 19% 감소한 1만 7,846일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일일 평균 어획량은 10% 증가한 115.8톤을 기록하였다.

어획량에서 외국 어선 및 러시아 국내 슈퍼 트롤 어선의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14%로 증가하였다.

명태어업의 또 다른 추세는 옵서버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어기에는 20명의 옵서버가 조업선에 승선하여 조업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승선율은 조업일 기준 23%, 선박 수 기준 17%의 커버리지를 기록하였다.”

명태 협회장은 보고 마무리에 원활한 조업을 협조해 준 수산청과 국경수비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4월 27일자





2023년 세계 연육 생산량, 약 80만톤 추정

국가별 생산·소비량, 명태 필릿 생산 추정치 등 발표

일본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의 마사키 료타 북미 사업부장은 지난 24일, 도쿄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2023년 세계 연육 생산량은 80만 톤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마사키 부장은 연육 수급 측면의 변화로, 2023년 러시아산 명태 연육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처인 중국행 수입량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산 명태 연육의 일대 소비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마사키 부장은 마루하니치로의 추정치를 근거로 하여, 전 세계 최대 연육 생산지인 미국의 2023년 생산량은 21만 톤, 베트남 11만 톤, 중국 10만 톤, 아르헨티나 7,000톤, 프랑스 3,000톤, 칠레 1,000톤 등이다. 5,000톤(전량 명태 연육)을 생산한 러시아가 새로운 산지로 이름을 올렸다.

마루하니치로는 2023년 세계 연육 총소비량도 80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최대 소비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며, 이들의 소비량은 총 26만 톤으

로 추정된다. 이 중 명태 연육 소비량은 절반인 13만 톤으로 추정된다.

마루하니치로 추정치에 따르면, 2번째로 많은 중국의 소비량은 15만 톤(명태 연육 2만 4,000톤), 3번째인 한국은 13만 톤(명태 2만 7,000톤), 미국 5만 톤(명태 약 4만 톤), 유럽 전체 5만 톤(명태 2만 4,000톤), 러시아 4만 톤(명태 1만 5,000톤), 대만 2만 톤(명태 약 2,000톤) 등을 기록하였다. 2023년 세계 명태 연육 총생산량은 27만 톤으로 추정된다.

마사키 부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명태 필릿 소비 비중은 총소비량 50만 5,500톤 중 유럽이 60%인 30만 2,000톤(1회 동결 제품 13만 3,000톤, 2회 동결 제품 16만 9,000톤), 북미는 21%인 10만 6,794톤(1회 6만 9,800톤, 2회 3만 6,994톤), 아시아는 4%인 2만 2,300톤(1회 1만 6,000톤, 2회 6,300톤)으로 추정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4월 26일자





中, 명태 수입량 및 재고량 감소

재고 부족으로 가격 상승

중국의 명태 산업은 2024년 초부터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보인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1월과 2월 냉동 명태(HS 코드 03036700) 수입량은 총 7만 7,76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1,056톤보다 14.5% 감소하였다.

1월 수입량은 1만 7,304톤으로 작년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23년 명태 수입량은 3% 감소한 59만 8,535톤으로 집계되었다.

작년 12월 22일, 미국 대통령은 제3국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금지 조치는 2024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되며, 12월 22일 이전에 주문한 러시아산 생선만 6월까지 미국에 도착할 수 있다.

1월 1일, EU는 중국에서 가공된 이중 냉동 필렛과 블록을 포함한 러시아산 명태 제품에 대해 13.7%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모든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 제조업의 조달 전략이 조정되었다.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은 미국에서 2,568톤의 냉동 명태를 수입했는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수입한 1,623톤보다 60%나 많은 양이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명태는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다.

중국은 연초부터 명태 가공품 수출도 감소하였다. 1월과 2월 수출 품목은 냉동 명태 필렛(HS 03047500) 2만 5,239톤, 냉동 명태살(HS 03049400) 955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 7,401톤과 1,525톤보다 각각 감소하였다.

2023년 중국은 19만 1,175톤의 명태 필렛과 1만 4,808톤의 명태 살을 수출하였다. 이는 20만 7,851톤의 명태 필렛과 1만 6,671톤의 명태 살을 수출했던 2022년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1월과 2월 수출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로 수입 감소율 14.5%보다 낮아 중국의 명태 재고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냉동 수산물 판매 온라인 플랫폼인 후카이 자오유(Hucai Zhaoyu)는 4월 10일 시장 브리핑을 통해 북부 지역의 명태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며 일부 재고는 이미 매진되었다고 밝혔다.

칭다오에 본사를 둔 한 달러는 러시아 회사가 2024년 3월 오희츠크해에서 잡은 25cm 이상의 H&G 명태 1톤에 8,150위안(1,127달러)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에 따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024년 1월에 어획된 같은 원산지의 제품이 7,900위안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CFR 중국 가격은 여전히 역사적 최저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후카이는 또한 올해 1월과 2월 랴오닝성의 원자재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5만 톤 이상에 비해 3만

8,755톤에 불과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러시아 선박 5척 중 3척이 다렌항에서, 2척이 칭다오에서 하역하였다. 현재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할 때 새로 도착한 물량은 금방 '품절'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4년 4월 16일자

EU 명태 수입량, 2024년 1월 급감

러시아산 ATQ 제외 여파...미국 필렛 수입량 여전히 적어

EU의 냉동 명태 필레 수입은 2023년 12월 기록적인 한 달 이후 2024년 초 급락하였다. Undercurrent News 무역 포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러시아의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었음에도 미국의 필렛 수입량은 여전히 적다.

EU 27개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 명태 필렛 수입량은 7,183톤에 불과하였다. Undercurrent New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 월 수입량 1만 톤 미만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0% 자율관세할당(ATQ, EU로 수입되는 재화에 특정된 양의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에서 제외된다. 그 직전인 2023년 12월, EU 가공업체들은 필렛 물량 비축을 위하여 대량으로 수입하였고 그 결과 역대 최다 수준인 5만 5,023톤을 기록하였다.

중국 및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지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필렛 수입량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1월과 2월에 미국은 5,701톤의 명태 필렛을 수입하였다. 수입량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수치이다. 2월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2,90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하였다.

EU의 12월 수입량은 대부분 저가의 러시아산 및 중국산 필렛(러시아산 원어 사용)인 반면, 1월 수입량은 대부분 미국산이었다.

1월에 EU는 미국에서 필렛 3,984톤을 수입했다. 이는 1월 수입량의 5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10% 미만을 기록한 12월에 비하면 비중이 대폭 증가한 셈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17일자



러 수산 협회, 정부에 신규 해외 시장 개방 촉구 “10개 신규시장 개방 시 연간 약 28만톤 수출 가능” 주장

러시아 경제 일간지 Kommersant는 러시아 고위 관료가 정부에 연간 27만 5,000톤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출할 수 있는 10개의 신규 시장 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전러시아수산협회(이하, VARPE)는 명태, 대구, 오징어 등 여러 수산 제품의 잠재적 수출 시장으로 인도,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지목하였다.

Kommersant에 따르면 헤르만 즈베레프(German Zverev) VARPE 회장은 러시아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검역청에 보낸 서한에서, “등재된 국가의 시장을 개방하면 무역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Zverev는 가공 능력이 과잉된 베트남 시장이 러시아 대구 공급업체에 있어 잠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목하였다.

Kommersant는 러시아 수산청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작년엔 중국이 러시아 수산물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수량과 금액 측면에서 전체 출하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Kommersant는 PCA 회장 Alexey Buglak의 발언을 인용하여, 러시아 수출업체에게 가장 유망한 신규 시장은 연간 약 9만 5,000톤의 흰살생선을 수입하는 동남아시아와 12만 5,000톤 이상을 수입할 잠재력이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연간 6만 톤을 수입할 잠재력이 있는 남미 지역이라고 언급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5월 7일자

한국, 중국 세븐일레븐과 게, 새우 스낵 출시

가공 비용 절감지에서 직접 판매지로 활용

중국 편의점 세븐일레븐 체인이 한국 기업 두 곳과 게와 새우를 활용한 스낵을 개발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

고소득 화이트칼라 인구가 밀집한 오피스 빌딩과 비즈니스 지역에 주로 위치한 중국 세븐일레븐 매장은 중국 대도시에서 스낵 제품을 판매하

는 대표적인 소매 플랫폼이다.

한국 기업 사조대림은 랍스터킹 브랜드로 진공 포장 게살 스낵을 유통하기 시작하였고, 한성기업은 중국 북부의 세븐일레븐 가맹점을 통해 연육 스타일의 새우 스낵을 판매하고 있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4월 23일자



트라이던트 유럽 자회사, 여전히 러산 명태 조달 독일 자회사가 조달 증으로 밝혀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알래스카의 수산부문 전체에 거대한 거점을 가진 수직통합형 대기업 트라이던트 시푸드(Trident Seafoods, 이하 트라이던트)사의 유럽 자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산 명태를 조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외 미디어가 전하였다.

해당 자회사는 독일의 냉동수산물 가공·판매 기업인 ‘피켄팩 벨트리브스(Pickenpack Vertriebs)’사로, 2016년에 트라이던트가 인수하였다. 이들은 이후 ‘피켄팩 시푸드(Pickenpack Seafoods)’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 트라이던트 유럽지사 상무 및 독일 경영진이 관리 중이다.

트라이던트는 본국인 미국에서 러시아산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대응에 불만을 표명하며 지난 1월 16일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업체로 구성된 ‘전미수산협회(이하, NFI)’ 탈퇴를 발표한 바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제3국이 가공한 러시아 원산 수산물에 대해

서도 수입을 금지한다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치의 배경에는 알래스카의 로비 활동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NFI 등 업계 단체는 해당 조치를 불필요하고 유해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자국 수산식품 가공업의 고용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조치라는 뜻을 표명하는 한편, 대체 조치로 수입관세를 제안한 바 있다. 트라이던트는 NFI 탈퇴 이유로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NFI와의 견해 차이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트라이던트의 유럽 자회사 피켄팩은 우크라이나 분쟁 개시 후 러시아산 명태 이용 정지를 표명했지만, 동사의 홍보 담당자에 의하면, 현재 해당 원료의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피켄팩 측은 알래스카산의 프로모션을 계속하는 동시에, 러시아산 수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수산 제품 해결책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5월 3일자



NPFC, 쾡치 공해 TAC 13만 5,000톤 설정

제8차 연례 회의서 합의

일본 수산청은 지난 4월 18일, 일본과 8개국이 2024년 북태평양 공해에서 쾡치의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을 15만 톤에서 13만 5,000톤으로 감축하는 새 규정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 9개 가맹국은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 제8차 연례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간 TAC를 산출하는 규정 도입에 합의하였다.

다만, 최근의 자원 수준에서 산출한 TAC는 전년도와의 변동 폭이 최대 10%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관할권을 포함한 북태평양 전체에 대한 2024년 총 TAC는 25만 톤에서 10% 감축된 22만 5,000톤으로 설정되었다.

쾡치 자원 악화 지속으로 인하여 자원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한 가맹국은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TAC를 자동 산출하는 어획관리규칙의 도입에 합의하였다.

전년도 TAC와의 변동 폭 한도는 10%, 20%, 40%, 무제한까지 총 4개의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 4개 시나리오 모두 5년 후 자원 회복이 예측되는 수치이다. 일본은 변동 폭 한도 40%를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급격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현재 행해지는 어업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10%로 결정되었다. 다만 자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때도 TAC의 증가 폭이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어획 과잉의 발생 또한 그만큼 규제된다.

9개국은 또한 연간 태평양 고등어(학명: *Scomber japonicus*) TAC를 공해 10만 톤으로 합

의하였다. 이 중 8만 톤은 선망어업, 2만 톤은 트롤어업에 할당되었다.

사카모토 테츠시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19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자원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자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공해에서의 적절한 자원 관리가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태평양에서 쾡치의 어획량은 2000년경까지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대만과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어획에 나서게 되었고, 해양 환경의 변화도 있어 자원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북태평양 조사 구역에서의 쾡치 추정 분포량은 2003년에 597만 톤이었으나, 2023년에는 109만 2,000톤으로 약 1/6 가까운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NPFC는 2015년 자원량 회복을 목표로 발족하였고, 가맹국이 회의를 개최하여 북태평양 공해 어획한도를 설정해 왔다. 그러나 쾡치 어업을 하는 6개국의 실제 어획량 합계는 주변 구역에서의 어획분을 포함하여도 2020년은 약 14만 톤,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0만 톤 전후에 그쳐, 회의에서 설정한 한도를 크게 밑돌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규정에 대해서, 일본 수산청의 한 간부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한 걸음 전진이다.”라고 언급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19일자, 22일자, 미나토신문, 4월 23일자



日 쯔치 2024년 TAC 6% 삭감

공해 포함 11만톤대

일본 수산청은 4월 26일 개최된 쯔치 TAC 관련 의견교환회에서,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의 TAC 감축에 맞춰 올해 일본 TAC를 전년 대비 6% 감축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전국 쯔치붕수망어협은 자원관리 강화를 환영하였다.

NPFC는 4월 18일 북태평양 쯔치의 TAC를 10% 감축(총 22만 5,000톤, 공해 13만 5,000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응하여, 일본 수산청은 공해와 EEZ에서 일본의 어획 비중을 감안하여, EEZ 8만 9,824톤(작년에 정해진 2024년 TAC는 9만 7,044톤), 공해 포함 일본 총계 11만 911톤(작년에 정해진 총계 11만 8,131톤)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의견교환회에서는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가 북태평양 쯔치의 최근 자원 평가를 설명하였다. 해당 기구는 다수 국가의 어획 압력이 늘어나면서, 2007년 이후 과잉어획 상태의 연도가 많아, 2009

년 이후의 친어자원량(SSB, 산란 가능한 성숙한 자원)은 어획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양(MSY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일본의 어획량은 2000년대에 20만~30만 톤대로 추산되나, 이후 급감하면서 2022년은 1만 8,000톤이다. 2022년도는 타 국가의 총어획량도 10만 톤으로 역사적인 최저 수준이었다.

일본 전국쯔치붕수망어협 측은 정부의 NPFC 대응에 대해 “힘든 협상이었다. 어떻게든 관리 규칙을 도입할 수 있어 고맙다.”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TAC의 배분에 찬성하였다. 한편, 쯔치 TAC 수정이 매년 전년 대비 ±10% 이내에서 행해지도록 NPFC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자원이 회복하는 국면이 왔을 때 올리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지원을 생각했으면 한다.”라고 요구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1일자



중국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최대 보조금으로 자국 수역 어업 감소, 해외 수역 효율성 증대

중국은 수생 생물자원의 어획량과 생산량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0년 중국은 전 세계 총어획량과 양식 생산량의 35%를 어획하고 생산하였다.

전체 어업 및 양식 생산량은 2000년 3,027만 톤에서 2020년 6,285만 톤, 2021년 6,700만 톤으로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양식업의 발달을 통해 수산자원량의 증가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양식 생산량은 23.3% 증가한 5,394 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어획량은 20.9% 감소한 1,296만 톤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어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2017년 중국 정부는 어선 건조 및 재건 지원 6억 1,830만 달러, 선박과 장비 현대화 4,720만 달러, 기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14억 달러 등 어업 기업 지원에 약 38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현재 수산업 발전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은 인프라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및 건설, 생산 능력 증대, 자국 수역에서의 어업 감소, 공해 및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서의 양식 및 원양어업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중국 농업부는 2025년까지 제14차 어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2020년 6,547만 톤에서 2025년 6,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어류 양식의 질적, 양적 발전과 어획량을 1,00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자국 수역에서의 조업을 줄여 어획량을 줄이고 원양어업의 어획량은 연간 230만 톤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 재정 지원 조치: 국가는 선박 건조, 항만 재건, 어선 현대화 및 건설, 연료비 보상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8년에는 이러한 보조금이 총 59억 달러에 달하였다.

칭다오 항구에서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어선 수는 한 회사가 소유한 10척(어획량 3,000톤)에서 31개 회사가 운영하는 169척(어획량 14만 톤)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상업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해 원양어업(자원조사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자금 조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러한 선박의 수는 2,701척으로 증가하였다.

산동성과 푸젠성은 제14차 5개년 어업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초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어업 투명성과 환경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보조금 액수는 선박의 크기와 조업하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경우 1,400~2,300달러,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의 경우 2,400~4,6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예산은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2) 비재정적 지원 조치: 중국 정부는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다른 국가의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20년에는 160개 이상의 중국 어업 기업이 42개국의 EEZ에서 조업하고 있다.

3) 종합적인 조치: 2025년까지 선전시 수산업 매출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3배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전 도시 계획 및 천연자원국은 현대 수산업 발전 계획(2022~2025년)을 발표하였다.



주요 지원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인프라 시설 건설이 포함된다:

①선전 국가해양수산물산지(대창만과 선산 샤오모항 항만 지역 재건, 생산 및 물류 시설 제공, 수산물 자원 제품 보관 및 판매 보장, 무역 전시회 조직, 해양 기술 분야 연구 개발, 수출입 및 인터넷 무역 개발 등을 결합한 국가 센터 설립); ②국제 참치 무역 센터 설립, ③미크로네시아 해양 수산 기지 건설(선

박 수리 기지, 냉장 시설, 정박지, 수생 생물 자원의 심층 가공을 위한 인프라 등 건설); ④심천과 홍콩에 혁신적인 해양 수산 단지 설립, ⑤어항 재건, ⑥수산물 자원의 품질 추적 및 어업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 개발; ⑦광둥-홍콩-마카오 광역 베이 지역 수산업 연합 결성; ⑧심천 국제 수산 전시회 조직; ⑨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문화, 테마별 행사 조직.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기술지, 2023년 7월 12일자

일본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어업 총수입의 14.5% 규모, 어선 및 생산 시스템 현대화 지원

2018년 일본은 수산업에 대한 공공 자금으로 약 12억 3,3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 지원은 어업 기업 총수입의 14.5%에 달했으며, OECD 국의 지원 평균은 8.5%였다. 이 중 6억 6,312만 달러는 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에, 7억 2,490만 달러는 현대화 및 인프라 제공에, 4,170만 달러는 어촌 공동체 지원에, 780만 달러는 전문 인력 개발 및 젊은 전문가 유치에, 2억 1,304만 달러는 R&D에 할당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선 현대화, 수출 지원을 위한 어항 개발, 어촌 부흥, 수산업 스마트 기술 도입,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가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예산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할당되었다:

- 1) 어민의 어업 소득 안정화 - 4억 2,620만 달러;
- 2)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 6,410만 달러;
- 3) 수생생물자원의 자원 공급에 대한 연구 및 평가 확대 - 940만 달러;
- 4) 자격 향상 및 젊은 전문가 업계 유치 - 72만 달러

5) 연안 어업의 경쟁력 향상(연안 인프라의 재할 및 건설, 어선 임대 및 임대 보조금, 불법어업 방지 조치 보장 등) - 2억 1,670만 달러;

6) CO2 배출량 감축 지향 해양 및 원양어업의 경쟁력 향상(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도입 촉진, 고성능 어선 건조 보조금 지원 등) - 4,680만 달러;

7) 수산업협동조합 경영효율성 개선 - 430만 달러;

8) 업계 생산성 향상(가공업자용 원료 공급의 지속 가능성 증대, 정제된 수산물의 저장, 운송 비용 보조, 소비자 수요 촉진) - 14만 4천 달러;

9) 어업 인프라 개발(어업 기지 현대화 및 어항 이용 촉진, 어장 보존 및 개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 7억 1,780만 달러;

10) 어촌의 기능 확충 및 활성화 - 1,150만 달러;

11) 농촌 해안 지역 개발 보조금 - 5억 6,450만 달러;

12)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 - 3,170만 달러;

13) 일본 영해에서의 외국 어선 조업 대응 - 4억 6,730만 달러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기술지, 2023년 7월 12일자



인도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생산, 고용, 수출 증대에서 기업 인증, 인프라 현대화까지

인도 정부는 2014년부터 수산업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시작하면서 수산업을 현대화할 방침을 세웠다. 2015~2016년에는 4억 4,100만 달러(약 3,000억 루피)의 예산으로 "통합 수산업 개발 및 관리 계획 - 블루 레볼루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시행 5년 후, 2008~2014년 5%였던 수산업 평균 매출 증가율은 8.81%로 증가하였다.

2018~2019년 인도 정부는 약 11억 달러(7,522억 루피) 규모의 수산 및 양식 인프라 개발 기금을 조성하였다.

인도 정부는 2016~2019년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1) 보조금: 어획량 및 어획액에 따른 어민 직·간접 지원금(5,000달러), 어선 건조 보조금(260만 달러), 산업 현대화 지원(130만 달러), 어민 보조금(110만 달러), 어민 특별 보험(1,040만 달러), 산업 이전(360만 달러) 등.

2) 수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수산업 생산 관련 R&D 자금 지원(1,420만 달러), 산업 관리(290만 달러), 수산물 마케팅 및 홍보(851만 달러), 어업인 공동체 지원(1,200만 달러).

2020년에 인도 총리가 총 28억 달러(20,050만 루피)를 투자하는 프라드한 만트리 마트야 삼파다 요자나(Pradhan Mantri Matsya Sampada

Yojana; 이하, PMMSY)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산 자원에 대한 어업과 생산을 강화하고, 수산업계의 고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수산물 수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업, 수산업 기업 인증, 인프라 및 가공 장비 업그레이드까지의 생산 격차를 해소하고 수생 생물 자원의 건강, 안전 및 어업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MMSY 계획은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1) 수산 부문의 생산성 확장 및 증가:

가) 연근해 어업 및 양식업 개발(어류 양식 가두리 건설 자금 조달);

나) 어류 양식 기술 현대화

(2) 인프라 및 생산 주기 관리 시스템 현대화

가) 어획 후 및 콜드체인 인프라 현대화:

냉장 유통 시설(냉장실, 냉장 트럭, 등온 차량, 이 동식 냉장실), 활어 마케팅 센터, 미니 사료 공장 건설 및 현대화;

나) 수산물 판매 인프라 개발(수산 시장, 전문 생선 가게 및 키오스크 건설, 심층 가공 조직 지원, 생선 및 수산물 판매를 위한 전자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해양 어업 개발(상업용 해양 어업용 어선 건설



및 인수, 선박 장비 인수 등);

라) 어항의 현대화 및 건설: 어항의 건설, 확장 및 기술 현대화, 통합 어선 양륙 센터의 현대화.

(3) 어업용 선박과 그물 교체, 저소득 어민 가구에 대한 재정 및 식량 지원 등 어민 생활 개선

PMMSY 투자 계획의 결과로 2년 동안 수산 부문에서 75억 달러(6만 2,600 루피) 규모의 24개 기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어류 생산량은 2019년 14만 1,640톤에서 2022년 16만 2,530톤으로 증가(14% 증가)하였다.

어류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시작된 활동과 프로젝트로 약 35만 명의 어민과 산업 전반에 걸쳐 97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학술지, 2023년 7월 12일자

호주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업계 총매출액의 5.9% 수준으로 수출, 생산, 환경 개선 지원

2018년 호주 정부는 수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R&D, 어업인 기술 개발 프로그램, 젊은 전문가 유치, 어업 공동체 지원 등)을 위해 1억 1,95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지원 규모는 업계 총매출액의 약 5.9%에 해당한다.

2020~2021년 호주 어업 부문은 20억 1천만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고용 인원은 1만 7천 명이다.

수산업 전략과 발전 계획은 6개의 문서를 기반으로 실현된다.:

- 1) 호주 수산업 경영 포럼의 의향서;
- 2) 국가 농업-문화 전략;
- 3) 국가 수산 자문위원회 - 우선순위;
- 4) 해양 어업 및 양식 보고서;
- 5) 2020~2025년 수산 연구 협동 조합의 연구 개발 계획;

6) 2022~2030년 국가 수산 계획

호주 정부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간접적인 재정 지원책을 제공한다.

해당 정책 문서에 따르면 2021~2022년 어업의 생산성과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1,349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 예산은 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인공 지능 기술 구현을 위해 할당되었다.

또한 호주 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약 6,7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또한 남동부 트롤 어업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 달러, 어장 서식지 복원을 위해 590만 달러의 예산이 발표되었다.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산업 생산성 및 생산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1억 3,55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였다.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학술지, 2023년 7월 12일자



캐나다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어민 보험 지원 외 인프라 및 장비 현대화, 수산물 홍보 지원

2018년 캐나다 정부는 항만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에 약 7,6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업계 운영 지원에 3억 9,0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후자의 범주에는 수산물 홍보를 위한 마케팅 프로젝트, 수산업 공공 행정, 수생 생물자원 보호 및 보호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어업인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은 총 2억 6,180만 달러로 어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특별 보험 시스템 비용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원 방향에 따라 캐나다는 어민 1인당 5,700달러를 지원하였다.

일반적으로 어업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산업 자금이나 통합된 프로젝트 일부로 제공된다. 지원에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뿐만 아니라 어업 기업과 어민에 대한 직접 자금 조달도 포함된다.

캐나다 정부는 대서양 수산 기금, 퀘벡 수산 기금, 캐나다 수산물 안정화 기금 등 3개의 전용 기금을 통해 어업 인프라 및 가공 장비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7년 더 연장된 대서양 수산 기금은 총 2억 9,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수출 촉진, 수산 클

러스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서양 수산 기금은 기술 개발과 젊은 전문 인력 유치를 통해 수산업 종사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정화 기금은 금수 조치의 영향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 부문을 지원하는 조치로 2020년에 만들어졌다. 이 기금에는 총 4,65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2018~19년 대비 코로나 방지 조치로 인해 수입의 25% 이상 감소한 어민을 위한 환급 및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작하였다. 보상 금액은 손실 소득의 최대 75%까지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3억 7,3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산업 개발 프로그램 연간 예산은 총 22억 달러이다.

이 중 2억 460만 달러가 어민과 수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배정되었다. 6억 8,660만 달러는 산업 인프라 개발에, 5억 2,320만 달러는 산업 운영 지원에 사용되었다.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학술지, 2023년 7월 12일자



미국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선박 건조, 보험 지원 외 R&D 지원 집중

미국의 해양 어업은 710만km²의 바다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2018년 미국 정부는 어업 기업에 2억 2,24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전체 산업 매출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중 240만 달러는 선박 건조 지원에 사용되었고, 2억 1,980만 달러는 어민들의 보험 비용을 상쇄하는데 사용되었다. 종합적인 산업 개발(R&D, 산업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 매출액의 14.2%인 8억 1,990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2021년 9월, 미국 정부는 팬데믹 및 안보 수산물 가공업체 보조금 프로그램(SPRS)에 따라 가공업체

와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약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역적 특성과 업계의 필요에 따라 할당된다. 이 과정에서 각 주에서는 중소기업 등 취약 생산 가공자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미국 농무부는 수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아동 영양 및 기타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수산물(농어, 새우, 흰살 생선)을 공급하고 있다. 농무부는 공공 구매 사업으로 약 1,700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구매하였다.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기술지, 2023년 7월 12일자

2023년 러시아 어업 수익 13% 감소

수출 효율성 감소 및 생산·유지 비용 상승

2023년 어업 산업의 순이익은 13% 감소한 1,361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전러시아수산업 및 수출업 협회 분석가들은 예상하였다. 이는 어업, 양식 및 어류 가공 회사의 총이익이 1,352억 루블이었던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협회는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신용 부하 증가. 어업 부문에서 이 수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7배 증가한 9,200억 루블로 증가하였다.

둘째, 투자 비용 증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민들은 어업 및 가공 능력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였다. 투자 규모는 5년 동

안 3배 증가한 1,012억 루블에 달했다.

셋째, 수출 효율성 감소. 2023년 대외 수출량은 256만 톤으로 물량 기준 8.6% 증가하였지만, 금액으로는 58억 달러로 5% 감소하였다.

넷째, 생산 비용 상승. 어류 생산 비용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연료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45%나 증가하였다. 병커링, 외국 항구에서의 선박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였다.

동시에 어민들은 세금 신고를 크게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여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4월 23일자



국가별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인프라 지원 등 여러 부분에서 유사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수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수산업 발전의 주요 동향은 양식업(일본, 인도, 중국), 원양어업(중국, 일본), 기술 현대화(인도,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환경 지속 가능성 개선 및 수생 생물 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자금 지원(중국, 일본, 캐나다, 인도, 호주, 미국 등 조사한 모든 국가) 등을 통해 수생 생물 자원 복원과 기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수산업 발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수산업 전반의 발전 수준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특이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인도에서는 정부가 수산업 인프라 개발을 위해 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정부의 지원은 주로 어업 업계와 공공 기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다.

반면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는 어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가 있지만 어선 및 항만 건

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어업 지원 조치의 범위가 간접적인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수산 부문 발전의 최우선 순위는 수산 인프라 개발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 정부는 어업 및 가공 인프라의 건설 및 인수에 대한 보조금 및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 EEZ 접근을 위한 외교적 지원 등 자국 어선의 지리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원양어업의 생산성 향상, 인프라 현대화, 수출 잠재력 실현과 함께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조치로는 해양 기술 분야의 설계 및 연구 작업에서 선박 건조 및 선박 수리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어획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수산 다기능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있다.

일본과 인도는 원양어업뿐만 아니라 연안 해역의 수산 생물 자원 어획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어선 현대화와 대형 원양 어선 건조에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소형 어선 임대 보조금, 연료 보조금, 연안 어업에 사용되는 항구 현대화 등을 통해 연안 어업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대형 어선뿐만 아니라 소형 어선의 현대화(연안 어



업의 소형 개인 어선 동력화 포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어업 인프라와 생산망 장비의 현대화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우선순위는 주요 산업 개발 기금에 의해 결정된다.

분석된 모든 국가의 또 다른 우선순위는 수산물 가공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수산물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다.

수산물 보관, 운송 비용 보조(일본, 인도), 수산물 가공 및 보관 인프라 현대화(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수출용 수산물 운송 보조(호주, 캐나다), 수산물 소매업체 건립(인도, 중국) 등 정부가 주로 재정 지원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공공 기관을 위한 수산물 구매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연료 및 사료비 보상, 소득 손실 기업에 대한 직접 지급), 간접 지원책(어촌 개발 투자, 젊은 전문가 업계 유치, 고급 교육 과정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어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에도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와 중국에서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휴업 기간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중국에서는 원양어업을 수행하거나 어업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산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등 정부가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교육 및 전문성 개발 과정 제공, 설계 및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 메커니즘도 있다. 인도는 주로 수산업체에 대한 직접 송금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미국과 호주는 수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수생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외적으로 이들 국가는 팬데믹 기간 어업 제한으로 인한 어업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었다.

국제 경험 분석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 수산물 저장 및 운송 비용을 보조하거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자원 기반을 확장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재정적 조치(대형 선박 건조 보조금)와 간접적 조치(인력 교육, 항만 및 냉장 인프라 개발 등)를 통해 원양수역에서 어획량을 증가시킨 주요 어업 국가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학술지, 2023년 7월 12일자



대만 원양 조업선, 여전히 문제 수역에 머물러

윤리적 수산물 생산 과정 중요

2023년 7월, 대만과 미국은 해양 자원 보존과 대만의 국제 수산 기구 참여에 관한 대만-미국 간 수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참여 기관 중 하나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의회에 제출한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IUU) 관련 격년 보고서에서 대만을 두 번째로 IUU 조업국으로 지정하기 불과 한 달 전에 개최되었다. NOAA는 대만이 2021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지만, 공해에서의 인권 침해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양 조업선을 보유하고 있다. 2,000척의 어선과 연평균 생산량 76만 5,000톤, 446억 신대만 달러에 달하는 대만은 세계 시장에 참치를 공급하는 주요 참치 공급국 중 하나이다. 양자간 국제 어업 접근 협정을 통해 대만의 참치 어선은 약 30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업은 2015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IUU 어업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만에 옐로카드를 발급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대만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을 막지 못하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한 EU 단일 시장 진입이 금지될 수 있었다. 그 결과 EU는 2019년에 대만에 대한 옐로카드를 해제하였다. 동시에 대만은 외교 동맹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국가들과 불법 어업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때때로 IUU 관련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대만의 IUU 연루는 불법 어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23년 보고서에서 NOAA는 처음으로 어선에서의 노동 조건을 포함한 수산업 부문의 강제 노동을 IUU 기준으로 다루었는데, 이는 EU IUU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만은 수년 동안 대만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어부(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에 대한 열악한 노동 기준과 부당한 대우 등 공해상 이주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 식량 부족, 선내 선원 명부 미비치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근로협약 위반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당국에 억류된 최초의 대만 어선인 '푸성 11호'에서 처음 드러났다. 대만도 외국인 선원의 해외 고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지만, 2022년 9월 미국 노동부는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생산 상품 목록에 대만산 수산물을 두 번째로 포함했다.

대만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선원에 대한 학대와 공해에서의 강제 노동 문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이라는 대만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대만과 국제 파트너, 특히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력에 관한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강제 노동은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인식이 높아지고 윤리적 수산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만의 공급망 참여와 수산물 수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europeanvalues.cz, 2023년 9월 19일자



가끔 눈을 감고

안 소 연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해

바다 깊이깊이 들어가
누워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고

아래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어떨까

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고
찬란하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고

물고기 곁을 지나가고
해초에 숨어 쉬어가기도 하고

가끔 눈을 감고 상상해보곤 해
어미 뱃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태아처럼
바닷속을 여행하고 있다고





4월 오징어 국내 동향

원양산 반입 시작, 수입량 20% 증가

□ **생산동향**(4월 오징어 생산량, 원양산 반입이 시작되며 전월 대비 증가)

4월 오징어 생산량은 4월 말 원양산 반입이 시작되며 전월 대비 증가한 5,824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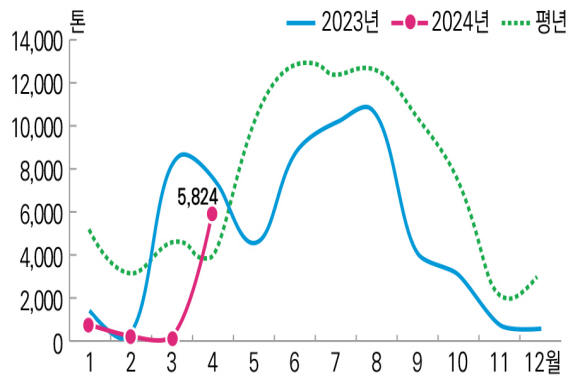
이는 작년보다는 23.6% 적으나, 평년 대비 40.7% 많은 양이다.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량은 22톤으로 4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며 전월 대비 감소하였다.

원양산 반입량은 5,802톤으로 작년보다는 23.6% 적었으나, 평년 대비 43.4% 많았다.

4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생산량은 5만 5,278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3.1%, 67.2% 많았다.

이는 어기 초 부진했던 어황이 3월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 반입이 점차 늘어나 공급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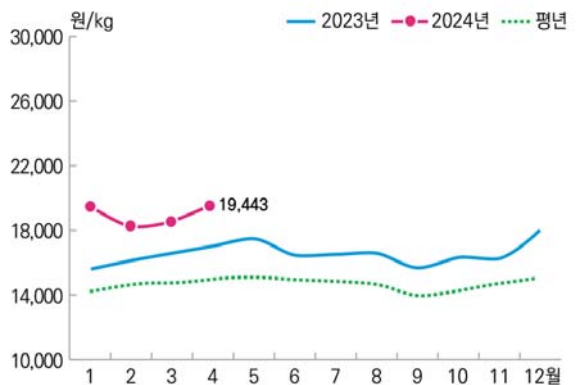


□ **가격동향**(4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kg당 19,443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

4월부터 시작된 금어기로 연근해산 공급량이 매우 적어,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1% 상승한 kg당 15,626원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2.6%, 51.1%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9,443원으로 전월 대비 5.3% 상승했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0%, 30.6% 높았다.



이는 정부비축물량 방출과 대형소매점 할인행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어황 부진과 원양산 오징어 반입



시기 지연으로 재고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 수출입동향(4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4월 오징어 수출량은 1,627톤으로 전월 대비 84.5% 증가했으나,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46.5%, 2.5% 적었다.

미국과 중국으로 각각 618톤이 수출되었으며, 다음으로 대만(124톤), 일본(86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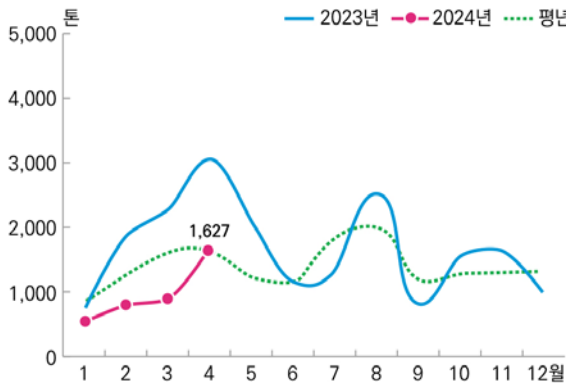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899톤), 냉동 오징어(478톤)가 수출되었다.

4월 오징어 수입량은 1만 8,964톤으로 전월 대비 20.1% 증가했으나,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2%, 11.9%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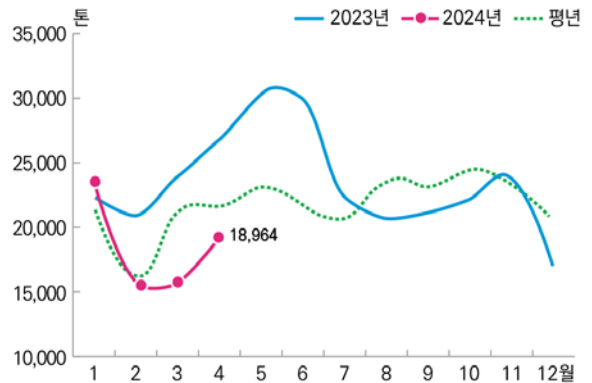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산(9,595톤)과 페루산(6,701톤)이 대부분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8,327톤), 냉동 오징어(7,083톤), 조미 오징어(3,015톤), 건조 오징어(497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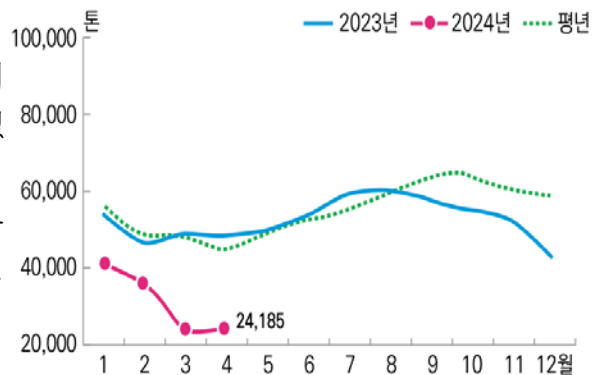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4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과 비슷)

4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2만 4,185톤으로 전월과 비슷했으나,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0.3%, 46.3% 적었다.

이는 원양산 반입이 늘었으나, 공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KMI 수산물측 5월호



4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9% 감소, 소비자가격 9% 상승

□ **생산동향**(휴어기)

원양명태 트롤어업 휴어기로 원양명태 생산이 없으며, 2023년 어기 어획물 반입은 2023년 12월 24일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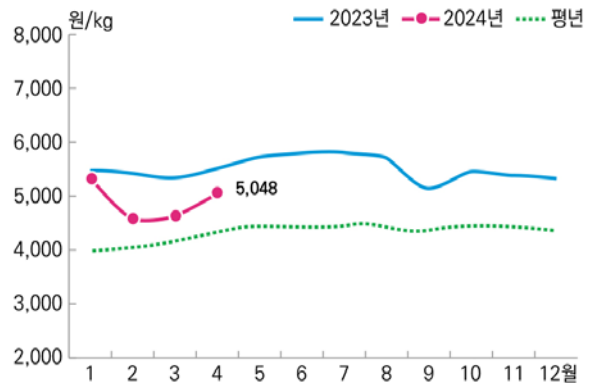
□ **가격동향**(4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9% 상승한 kg당 5,048원)

4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372원으로 전월과 비슷했으나 평년보다는 1.6% 높았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던 작년 동기보다는 5.7%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대형소매점 할인율 변동 등으로 전월 대비 8.5% 상승한 kg당 5,048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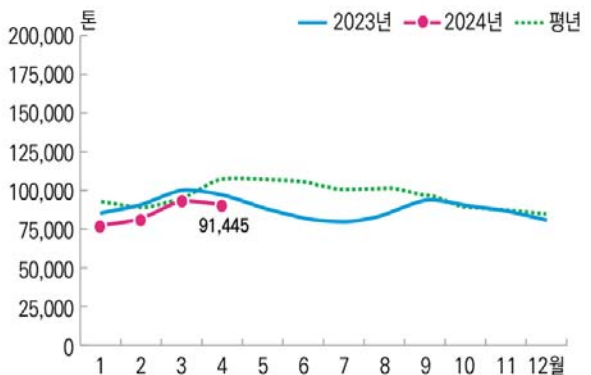
평년에 비해서도 16.9% 높았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8.0% 낮았다.



□ **재고동향**(4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4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3.3% 감소한 9만 1,445톤이었다.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5.1%, 15.1% 적었다.





□ 수출입동향(4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9% 감소한 2만 7,465톤)

3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각각 40.7%, 54.9% 증가한 3,686톤이었다.

그러나 평년보다는 46.5% 적은 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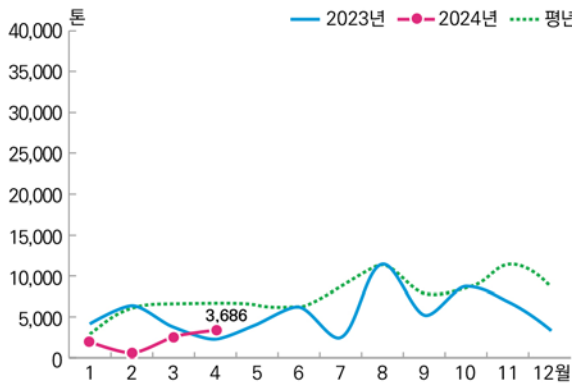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냉동제품이 중국으로 1,869톤, 나이지리아 486톤, 베트남으로 388톤이 수출되었으며, 냉동연육은 태국 381톤, 멕시코로 168톤 수출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8.7% 감소한 2만 7,465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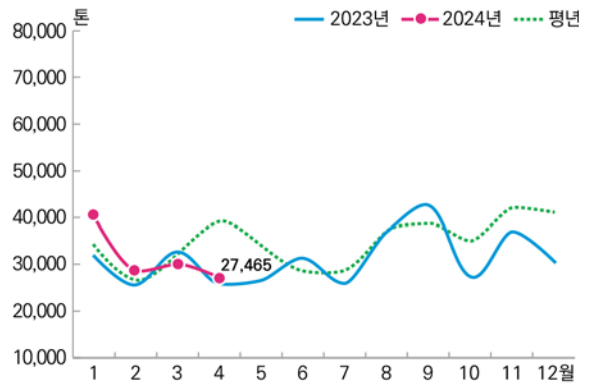
평년에 비해서도 31.3% 적었으나, 작년보다는 7.6% 많았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제품이 1만 2,736톤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 냉동필렛 3,664톤, 미국산 냉동연육 3,221톤 등이 수입되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관측 5월호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우리나라가 발의한 5개 제안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되었다고 밝혔다.

* NPFC(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북태평양 꽁치, 고등어, 빨강오징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5년에 수립된 국제기구(우리나라, 일본, 미국, EU 등 총 9개 회원국으로 구성)

먼저,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채 변경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였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 소하성 어종: 연어, 송어 등 해양에서 생활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하는 어류

한편,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최근 북태평양 꽁치의 자원량이 급감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체제인 ‘어획통제규칙’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자원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나라 꽁치 업계의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채택된 북태평양 꽁치 어획통제규칙은 올해부터 시행되어 북태평양 꽁치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획통제규칙(Harvest Control Rules): 회원국이 협상을 통해 매년 어획량을 정하는 전통적 방식 대신, 회원국 간 합의된 일련의 알고리즘(자원 상태, 환경 조건 등의 지표 이용)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또는 총허용노력량(TAE, Total Allowable Effort)을 결정하는 관리 규칙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 필요성과 조업현장 상황을 반영한 여러 제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이끌어 내며 논의를 선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나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 5천 톤 공급 개시 원양 오징어 생산량 60% 증가, 국내 수급 불안 해소 기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30일(화) 오전 10시 부산 감천항에서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하역 및 공급 현장을 점검한다.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2월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4월 3주(~4. 20.) 기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약 5만 2천 톤*으로 생산이 원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9천 톤보다 6천 톤 늘어난 약 1만 5천 톤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생산 물량도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되어 오징어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해수부 조업감시센터 어획보고 기준

이날 송명달 차관은 원양산업협회로부터 원양 오징어 생산 및 공급 동향을 보고받은 후 원양 오징어가 운반선에서 하역 후 소비처로 공급되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한다. 송명달 차관은 현장에서 오징어 물가안정을 위해 원양 선사 관계기관에 신속한 공급을 당부할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대중성어종인 오징어는 그간 생산이 계속 부진했으나, 올해 원양 오징어 생산이 원활해지면서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내에 반입된 원양 오징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적정 물량을 비축하여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오징어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용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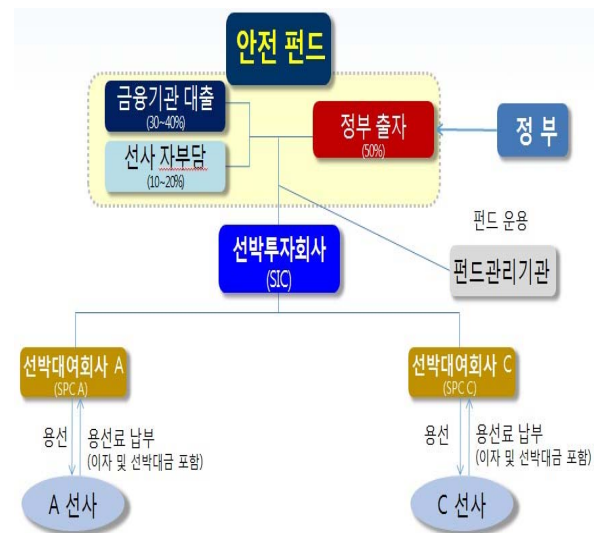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8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되었다. 해당 선박들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구멍정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선원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75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 → Notice 게시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가 향상된 신규 원양어선이 더 많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체계>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이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3	총괄(겸직)
	김효상 과장	589-1609	기획
	조성주 과장	589-1608	홍보
	김민재 주임	589-1622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총무부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회계
	조성환 과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이인수 사원	589-1607	원양어업관리자금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무	589-160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	589-1620	참치연승
경영지원본부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최상진 주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이승환 사원	589-1618	북양, 쫄면
경영지원본부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	051-253-3388	총괄
		김현애 과장		수출, 반입
경영지원본부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물협업센터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물협업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발행 2024년 5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 영 규

편집인 김 영 규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양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티아민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소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저칼
	꽂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